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MAY 9 1983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한국일보 토론토

No.1125 1983년 5월5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Thursday, May 5, 1983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홍콩거점 쿵·록갱단 회원400명 토론토상륙

중국계 갱단 난무

온타리오내 아시아계학생 피해 커 …경찰조사 착수

최근 온타리오주내 각급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시아계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중국계 갱단의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토론토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토론토 경찰과 연방경찰 중국계 범죄조직 담당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홍콩을 거점으로 한 쿵·록(Kung Lok)갱단의 회원 약 400명이 토론토시내에 침투해 있다고 밝혔다.

이 갱단은 해외유학생들을 포착, 금품을 착취해 왔으며 최근에는 약 50명의 학생을 가장한 갱단 멤버도 보충된 실정이라고 경찰당국은 밝혔다.

이들은 특히 하보드·칼리지엣, 센트랄텍, 모나크팍, 델포스텍파 코스모폴리탄칼리지, 그레이트·레이크 칼리지, 팍·애비뉴 아카데미등의 학교에 연관되어 있다.

이들은 학교내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은행카드 이용자들을 위협, 금품을 갈취했다.

메트로 어린이보호협회의 레이몬드·청씨도 중국인사회에 조직갱단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갱단의 일부는 나이어린 소년소녀에게 매춘활동을 강요하는 악랄한 수법도 쓰고 있다.

한편 피해학생들은 신고하기를 꺼려하는데 그 이유는 이로인해 추방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경찰당국은 앞으로 유학생을 위한 특별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신설, 이들을 보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시교육위원회에서도 다음주내 이를 돕기위한 영어와 중국말을 통용하는 소셜·워커(Social Worker)를 두기 위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91년까지 1~2백만명 실직

연방정부 비공개보고서 예상

(오타와)기술발달및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1991년까지 1~2백만명의 캐나다 제조직 종사자들이 직장을 잃게 될것이라고 연방정부의 비공개 연구보고서가 밝혔다.

연방정부의 도날드·존스톤 경제개발장관의 특별지시로 실시된 이 연구는 1980년대말경 제조분야의 종사자중 4분의 1내지 절반, 그리고 비지네스및 금융계 서비스직업의 4분의 1정도가 불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견했다.

지난 1월말 작성된 이 보고서는 또 기술개발로 인해 창출되는 직장의 수가 사라져가는 직장의 수를 따르지 못해, 앞으로 8년간 정부가 2백만개의 직장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캐나다의 실업률은 10%이하를 지킬 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조직종의 수가 줄어드는 대신 기술개발로 대형자원개발계획, 패스트·훗(Fast Food)및 노인돌보기등의 직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서(Word Processor)가 많은 비서직을 대신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개발로 워드·프로세서 제조에 쓰이는 알루미늄이나 철강류 제품의 양도 줄어들게 해서 결국 그 방면의 제조직종도 줄게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한 앞으로 새 직종은 주로 남부 온타리오, 뱅쿠버, 에드몬톤, 캘거리, 르자이나, 사스카툰, 위니펙, 핼리팩스등에만 몰릴 것이며, 몬트리얼이나 퀘벡, 세인트·존스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직장감소는 단지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구조의 변천, 즉 세계의 물품공급및 수요형태의 변화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예를들어 제3세계가 광물질과 임산품을 공급하고, 유럽이 곡물류 생산을 증가시키며 서방세계의 자동차및 부품산업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인체에 해로운 우라늄과 석면의 수요가 줄어들면 전통적인 캐나다 산업구조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도 하면된다"

노인영어웅변대회 입상자들 기염

노인들이 영어로 웅변대회를 가졌다.

"젊은이들이 한번 연습할때 우리는 2번, 3번 발음해 보면 그래도 좀 나아지겠지요."

바로 이런 생각아래서 노인들은 영어배우기에 눈에 불을 켰다. 그 불은 말때문에 받는 수모와 어려움을 점차 녹혀가고 있다.

지난 29일 토론토한인 YMCA창립 6주년 행사가 있기 약1시간전 Y영어학교에 다니는 학생 10명은 150여명의 동교생 앞에서 3~4분씩 웅변했다. 물론 영어웅변이다.

"사실 웅변이기보다는 영어작문을 외워서 암송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지만 마이크 앞에서 우리말로 연설하기도 힘든데 노인들이 영어로 스피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찬사를 보낼만합니다."고 노인학생들을 지도해온 한 교사는 감격해서 말했다.

한인Y 김창열총무는 "노인들도 하면 됩니다. 노인들이 한인사회 최초로 영어웅변대회를 가졌다는 것은 다른 많은 노인들에게도 배울 용기를 줄 것입니다. 아니, 젊은이들도 노인들의 모범을 배워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자극할 것입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날 웅변제목은 자유였고 시간제한도 없었다.

노인들이 택한 제목은 "기독교인으로서의 나", "코리안 Y, 땡큐", "기도하는 방법", "나는 캐나다를 좋아한다", "시편1장", "시편23장"등이었다.

심사는 프랑코·사보이에 메트로토론토 Y부회장과 Y영어교사 스잔·레작, 제니·홍씨등 3명이었다. 이들의 심사평은 "발음이 불분명해서 못알아 듣기도 했지만 그만큼 하기까지의 노력은 모든 이민자의 모범이다''라는 것이었다.

심사원들은 1등에 송교역(67)씨, 2등에 장수명(61) 박묘식(56)여사를 뽑았고 나머지 7명에게는 공동 3등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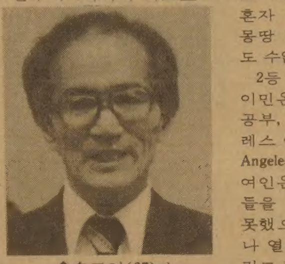
이들이 속한 Y 영어학교는 토요일 아침 10시30분부터 1시까지 빅포드·파스쿨(크리스티 지하철정거장 서남쪽건너편)에서 열린다. 무료.

1등의 송씨는 Y 학교외에 코뮤니티·센터에 나가 주3회 2시간씩 영어를 또 배운다. 그전에는 한국노년회 영어교실에 1년 다녔고 그 이전에는 웰컴·하우스(새이민자 영어교습기관)에서도 배웠다. 그만큼 열성이었다.

"76년 이민왔을 때는 한마디도 못했지요. 그것이 하도 불편해서 쫓아다녔는데 아직도 히어링(듣기)은 문제입니다."고 말했다.

45년전 황해도 「해주고보」때 배워보고는 캐나다에 와서 처음 대하는 영어는 그만큼 어려웠으나 이번 웅변대회 원고 "지난 여름의 휴가(My vacation—last summer)"도 자작이었고 발음도 혼자 익혔으며, 원고를 몽땅 외울 정도로 연습도 수없이 했다.

2등 장여인은 3년전 이민온 후 매일 영어를 공부, 이번에 "로스엔젤레스 여행 (My trip to Los Angeles)"를, 동률 2위 박여인은 "6년전 온후 애들을 봐주느라고 공부 못했으나 요즘은 시간이 나 열심히 배우는 중"이라고 말했다.


◆송교역(67)씨

◆2등상을 받은 장수명 여사(좌)와 박묘식 여사.

"KK團 배후조종人物 있다"

한인청소년갱단

警察관계자, 한미단체交流協 세미나서 밝혀

"갱단규모는 1백여명·저명人士자제도포함"

(LA지사)

한미단체교류협의회(회장 : 황회철박사)는 28일 용궁에서 가진 4월 정기모임에서 「한인컴뮤니티와 청소년 갱단」의 문제를 논의했다.

권희상목사, 주의회원 내총무 수석보좌관 짐·맥더못, 왈리·헐경찰관(코리아타운 파출소근무)등 관계인사 1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은 한국 청소년갱단인 K.K.(Korean Killers)단에 관해 집중적으로 거론했으며 연사로 초대된 왈리경찰관은 「이에 관계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은 1백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중 가장 활동적인 연령은 17~22세이며 전체의 70%가 10대라고 덧붙였다. K.K.단내에는 L.A.파, 세리토스파, 밸리파등 3개파벌이 있으며 이들은 내부의 주도권다툼등으로 서로 싸움도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K.K.단의 활동은 노상강도범죄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들이 저지르는 절도수법도 신고를 꺼리는 한인주택을 치밀한 사전준비후 터는등 갈수록 대담·지능화하고 있다. 왈리경찰관은 「아직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40~50대의 배후조종인물이 있음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갱단에 가담하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아직 완전히 악에 물들어 있지 않으며 주위의 따뜻한 이해와 인도를 받으면 정상인으로 선도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들중에는 목사, 교육자, 기타 유명인사의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의 시세

CN$1,00 = 627,10원
CN$1,00 = US81,51센트
금(런던) = $531,82
은(토론토) = $15,01/oz.

이민의 문화적 자아를 밝혀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오늘의 예금금리(4/6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8.4%		6.75%
90일	8.4%		6.75%
180일	8.5%	8.25%	7.25%
365일	8.75%	8.25%	7.75%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강 찬 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AST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현영일
카나다공인회계사무소
☎444-9341
Yong I. Hyun 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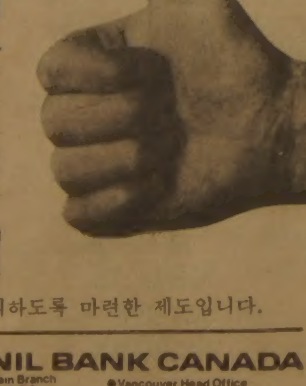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은하 보석
ROLEX
한품화장품 대리점
교포유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현찌소지업체
45% ~ 50% OFF
오메가시계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노력과 땀으로 이뤄논 결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증식시킬수 있을까?
●정기예금및 적금 ●대출업무
카네이션 정기적금 월부금표
정기적금의 월부금과 지급액 단위 : CAN$

기 간	계약액	월부금	납입총액	지급보출금	특별금리	지급총액
6개월	500	81.44	488.64	11.36	6.07	506.07
	1.000	162.88	977.28	22.72	12.14	1.012.14
1 년	500	39.68	476.16	23.84	10.99	510.99
	1.000	79.36	952.32	47.68	21.98	1.021.98
1년반	500	25.84	465.12	34.88	14.84	514.84
	1.000	51.68	930.24	69.76	29.68	1.029.68
2 년	500	18.92	454.08	45.92	17.93	517.93
	1.000	37.84	908.16	91.84	35.86	1.035.86

● 500불 이상은 500불을 기준으로한 배수
높은이자율 13.97%
카네이션 적금은 "푼돈으로 목돈 마련"에 편리하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카나다 韓一銀行 토론토지점
HANIL BANK CANADA
●Toronto Main Branch P.O.Box 262 6960, 1 Canadian Place Toronto M5X 1C9 (416) 865-0456
●Vancouver Head Office 2674 Four Bental Centre 1055 Dunsmuir St. Vancouver. (604) 681-2266

(양로원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
등불의 선교와 자선의밤

□출 연 • 등불중창단
□일 시 • 1983년 5월14일(토) 오후7시45분
□장 소 • 중앙한인연합교회본당 (353 SHERBOURNE ST., TORONTO.)
□주 최 • 한인양로원건립위원회
□후 원 • 한인회, 노년회, 토론토한인합창단
□연락처 • 766-8849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회관건립 운동의 모범"

송중구씨 미망인 1천달러 전해

암으로 사망한 송중구씨(53)의 미망인 권장혜여사는 3일상오 토론토한인천주교회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슬픔을 가까스로 억제하며 1천달러가 든 봉투를 조한철 한인회관건립모금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앞서 고인으로부터 "한인사회에 뭔가 남기겠다"면서 1천달러 기증의사를 직접들은 친우 박광철(전동우회이사장)씨는 "운명을 앞둔 환자가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내놓은 돈인 만큼 그 뜻이 받들어져 회관건립에 도움이 되고 타인의 모범이 된다면 고인을 위해 큰 다행"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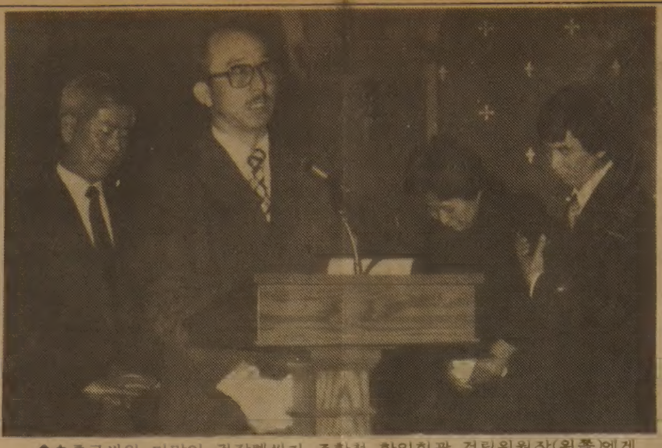
조위원장은 "고인의 뜻은 회관건립에 씨앗이 될것이다. 회관이 건립되면 모범이 되어준 고인을 기념,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건립위에 건의하겠다"고 말하면서 고마운 뜻을 표했다.

오랫동안 암과 싸워온 송씨는 1일상오 입원중이었던 세인트·마이클병원에서 사망했다.

송씨는 65년 서독에 취업차 갔다가 68년 캐나다로 왔으며 버라이어티상점을 경영해 왔다.

송씨는 소속된 한인천주교회와 동우회에도 각각 1천달러를 기증할 것도 유언했다. 천주교 기증은 8일 1시미사때 미망인이 이석현 본당회장에게 전할 예정이다.

고인의 유해는 자택앞에 잠시 머문후 파론(Parklawn)공동묘지에 안장됐다.



◆송중구씨의 미망인 권장혜씨가 조한철 한인회관 건립위원장(왼쪽)에게 전달할 1천달러 봉투를 손에 쥐고 박광철씨의 소개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은 친척 김영식씨.

면허비 35불로 인상

메트로성인잡지판매

메트로·토론토 시의회 집행위원회는 3일 성인잡지 판매규제법을 실시할 것을 재확인함과 동시 잡지판매면허비를 지난번의 연28달러에서 35달러로 인상시키기로 하는 새 안을 통과시켰다.

아트·이글튼 토론토시장의 재검토 요청안에 따라 이날 또다시 집행위의 토의를 거친 동 규제안은 오는 11일 메트로 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아시아계 암발병율 백인·흑인보다 낮아

미국내 암발생은 인종에 따라 차이를 보여 한국, 일본, 중국등 아시아계 인종이 백인이나 흑인에 비해 낮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고 한 보고서가 밝혔다.

미국 암협회가 과거 30년동안 수집한 데이타를 종합분석하여 27일 공개한 보고서 「1983년 미국내 소수민족의 암에 관한 사실과 수치」는 암발병률이 개인의 인종과 관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암발생률의 인종적 차이는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들에게서는 별로 크지가 않아, 암발생이 인종적 요인외에도 환경적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서는 덧붙였다.

L.A.카운티거주 인종중 흑인남성이 백인남성에 비해 12%가 높은 발병률을 보였으며 반면 흑인여성은 14%가 낮았다.

특히 흑인남성의 전립선 암발생은 현저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주된 이유중 하나는 흑인남성이 다른 인종에 비해 흡연과 음주를 많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암이란 사는 지역보다는 생활방식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암협회의 토렌스·가핑켈박사는 말하고 있다.

"실업율은 가정불화와 비례"

온타리오가족봉사협회 보고서지적

온타리오 가족봉사협회(Ontario Family Service)는 3일 캐나다내의 각 가정들이 높은 실업률에 따른 각종 가정불화가 접증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협회의 위원인 밥·카우치만씨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실직률에 비례해 가정파탄율이 높아진다고 전제하고 동 협회의 상담자가 2년전에는 5%를 기록했으나 작년도는 13.4%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실직이나 휴직의 상태로 있을때 대부분 부부싸움, 자녀들에 대한 분풀이 등을 하게되어 가정의 화평이 깨진다고 분석하면서 특히 청소년 4명중 1명이 실직상태이며, 22세~24세의 혼령기에 특히 많아 이들의 결혼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욕대학 사회학 교수인 윌슨·헤드씨는 경기침체의 또다른현상으로가 출했던 청소년들이 실직을 당하고 실업수당을 받고 울적할때는 잊었던 가정으로 돌아오는 경향도 높다고 말했다.

핵동결위한 투쟁 천명

미국내 로마·가톨릭지도자들 결의…캐나다에도 통보

(시카고) 미국내 로마·가톨릭지도자들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핵동결을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전국가톨릭총회에서 238대9로 통과된 이같은 결정은 앞으로 미전역 가톨릭교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주교와 신부들은 4만여자에 달하는 목회편지 형태의 「평화의 도전 :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책임(The Challenge of Peace; God's Promise and Our Response)」이라는 자료를 통해 지나간날 미국이 저지른 핵무기와 관련된 활동의 역사를 밝히고, 핵무장증강 중단의 필요성, 미소간의 핵무장현황등의 실상을 밝히며 5천만 가톨릭신자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이 서한은 또한 핵시대의 도덕성을 설명한후 "오늘날 핵세력은 인간존엄과 문명, 역사를 파피하는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톨릭지도자들은 금요일을 고기 없는 음식(meatless)을 먹고 참회하여 경건히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날로 하자고 제청했다.

한편 레이건 미대통령은 미국은 현재 핵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소련을 견제할 힘이 필요하다면서 핵동결에 대한 제의를 묵과하고 있는 입장이다.

동등참여주간

9일부터…토론토시

토론토시는 오는9일부터 13일까지 「동등참여주간(City's Equal Opportunity Week)」으로 정하고 각종행사를 벌린다.

3회째로 갖는 이번 행사는 파트타임고용인, 여성, 학생, 장애자들에 대한 고용동등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시, 토론, 워크숍등을 실시한다.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최경자목사

제5계절

골프와 구원

최경자(락우즈연합교회 교육목사)

골프시즌이 돌아왔다. 골퍼들의 오직 소원은 공이 좀 잘 맞아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골프는 특히 오랜경험과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정신집중과 마음의 평화를 요구하는 운동이라고들 한다.

이런 조건을 다 구비하고서도 깃대 꽂힌 그린을 향해 공을 곧장쳤지만 결국 물에 빠지거나 숲속에 숨어버리며, 구멍을 향하여 공을 조심스럽게 굴렸지만 구멍을 살짝 비켜서 공은 엉뚱한데로 굴러간다.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될까?

어떤이는 골프채가 나빠서 안된다고 하며 새것으로 바꾸고, 어떤이는 치는 폼이 나빠서 그렇다고 하며 몸과 팔을 다르게 비틀고, 어떤이는 더 잘쳐야겠다는 압박감 때문에 안된다고 하고, 또 어떤이는 오늘 아침 마누라 잔소리가 심하더니 정신통일이 안되어서 공이 비뚤게 나간다며 혈압과 비례해서 그로스 점수를 높힌다.

옛날에는 골프만큼이나 활쏘기 운동이 유행이었나 보다. 정신통일과 바른자세와 정확한 각도로 과녁을 향하여 화살을 쏘았지만 과녁 한가운데 맞는것 보다는 살짝 살짝 빗나가는 화살이 더 많았을게다.

이 빗나간 화살을 희랍어에서 "죄"라는 단어와 동의어다. 그래서 바울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않는 악을 행한다"고 탄식한다. 공이 원하는데로 가지 않고 원치않는 엉뚱한데로 떨어질때 골퍼들은 바울과 같은 탄식소리를 연발하리라.

이것은 죄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한다. 죄가 많기 때문에 원하는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골프채가 나쁜 죄, 치는 폼이 나쁜 죄, 남보다 더 잘 쳐야겠다는 오만죄, 마누라 속상케한 상해죄등등의 많은 죄를 짓고서 공이 잘 맞아 나가주기를 바라는 것은 또 하나의 욕심죄를 짓는 것이 아닐까?

좀 더 심한 골퍼들은 골프나 실컷 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것이 진정 소원이라면 골프치다가 죽은 골퍼는 행복하겠지만 남은 가족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피조물 전체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 골퍼들만 위한 것이 아니다.

건강에 좋고 기분전환에 좋다는 골프이론을 피력하는 골퍼들만 구원을 받을려고 한다면 주말마다 아버지 없는 아이들의 불만과, 남편없는 아내의 가슴앓이를 무시하는 가족소홀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알고들 계신지.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따라서 인류전체와 앞뒷마당 잔디를 비롯해서 우주만상 전체가 구원받아야 하며, 심지어는 아이들과 마누라까지도 육체의 건강과 기분전환을 통해서 구원 받을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와 남편만이 공을 멋있게 치고 정확하게 퍼팅(Putting)하는 골퍼가 될 수 있으리라.

폴랜드 반정데모 계속

1일이어 3일밤 5개도시서 충돌

(바르샤바=외신종합) 지난1일 메이·데이(May Day) 즉 노동절을 맞아 폴랜드 전역의 20여도시에서 「솔리대리티(Solidarity)」 지지자들이 반정부데모를 벌여 보안경찰과 충돌한데 이어 3일에도 5개도시에서 충돌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저녁 폴랜드의 첫 민주헌법을 기념하기 위한 「헌법일」 대집회를 마치고 수천명이 평화로운 시위행진을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탄을 발사함으로써 충돌이 벌어졌다.

수도 바르샤바에서는 이날밤 대성당에서 「헌법일」 기념 성회를 마친후 8,000여명이 평화적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몽둥이와 물대포를 발사했다.

헬멧을 쓴 경찰들은 올드·타운(Old Town)으로부터 10블럭좀 중심부로 행진해오도록 내버려둔 후에 공격을 개시했으며 6명 내지 20명으로 한조를 이룬 폭동진압경찰들이 고무방망이로 데모대들의 진로를 막고 구타했다. 그러나 심한 부상을 당한 사람은 목격되지 않았다.

그댄스크의 서방측 기자들로 발티시에서 경찰이 「솔리대리티 만세」를 외치는 3,000여명의 데모대를 해산시켰다고 보도됐다.

솔리대리티 즉 폴랜드 전국자유노조는 정부에 의해 불법화됐었다. 이외에도 러블린(Lublin)과 크라코우(Krakow), 노와·후타(Nowa Huta)에서도 데모가 일어난 것으로 보도됐다. 이곳 주민들은 「헌법일」을 맞아 거리시위를 벌이지 말것을 종용하는 「솔리대리티」 지하노조원의 당부에도 불구, 데모를 벌였다.

등불중창단 자선음악회

14일 중앙한인교회

선교를 목적으로 교민여학생들로 조직된 등불중창단이 오는 14일(토) 밤7시45분 중앙한인교회에서 한인양로원건립기금 마련을 돕기위한 "선교와 자선의 밤" 음악회를 갖는다.

79년 3월 조직된 이후 각종 교민행사에서 성가등을 연주해 온 "등불"은 현재 문남귀씨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이번이 제4회 발표회로 단원은 11학년 학생부터 대학생 6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주장소는 353 Sherbourne St.이며 주최는 한인양로원 건립위(위원장 나상선), 후원은 한인회, 노년회, 토론토 한인합창단이다.

등불중창단은 그동안 6.25 참전용사의 밤, 청소년예술제등 교민행사에 찬조출연한 이외에 여러 교회행사에 60여차례 출연했었다.

등불중창단의 후원회 회장으로 있는 천중환 양토원건립위 이사장은 여학생들로서 음악을 통해 선교및 봉사에 뜻을 둔 동 중창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20여명의 후원회원들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단원들은 유성순, 김혜경, 이은주, 채성은, 서선희, 조미혜등이다.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226>

헤모인 ㉑

毛世어머니 찾아 H郡을 샅샅이 뒤져…

마인은 안타까운 눈으로 두봉을 바라보았다. 그는 단서가 될만한것을 포착하려고 기를 쓰고있었지만 두봉의 입에서는 좀처럼 그런 것이 나오지가 않았다.

『모세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곳은 모르나요?』

『모릅니다. 전라도땅 어디라고 듣긴 들었는데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마인은 두봉의 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지도를 갖다줄테니까 잘 생각해봐요.』

마인은 뛰어나가 한국 지도를 한장 구해가지고 돌아왔다.

두봉은 지도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그것을 도로 돌려주었다.

『H군입니다.』

『주소는?』

『그건 정말 모릅니다. 주소까지는 말하지 않았읍니다. 그냥 H군이라고만 말했던 것같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그것도 모릅니다.』

마인은 이마에 번진 땀을 닦았다.

『모세의 진짜 이름은?』

그는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 위해 물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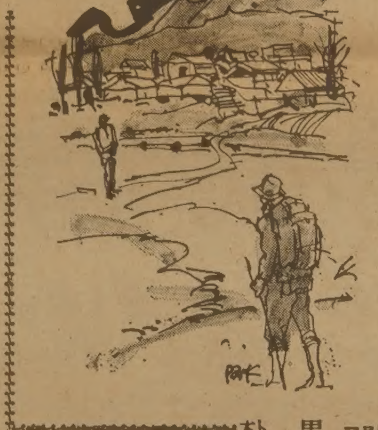
『진달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왕가였는데 나중에 진씨집안에 양자로 들어가서 진달이라는 이름을 가졌답니다.』

『왕가였을 때의 이름은?』

『그건 모릅니다.』

마인은 거기서 그만하고 병실을 나왔다. 지금의 상황에서 모세의 어머니를 찾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그는 판단할수가 없었다. 그러나 만나지 않고 그대로 지나칠 수는 없었다.

그는 늙은 김형사를 설득해서 H



朴 男 그림

군으로 내려갔다. 목적지에 닿았을때는 이미 밤이 되어있었다.

그들은 읍거리에 있는 조그만 여관에 피곤한 몸을 뉘었다.

어떻게 찾아야한다는 방향설정도 되어있지않았기 때문에 그저 막연하기만했다.

이튿날 그들은 하루종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수소문해보았다.

『옛날 중국인 왕씨하고 결혼했던 할머니가 사는데를 아십니까?』

대개 이런 식으로 물으며 돌아다녔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함께 다녔는데 시간절약을 위해서 각자구역을 나누어, 혼자서 돌아다녔다.

첫날은 아무 소득도 없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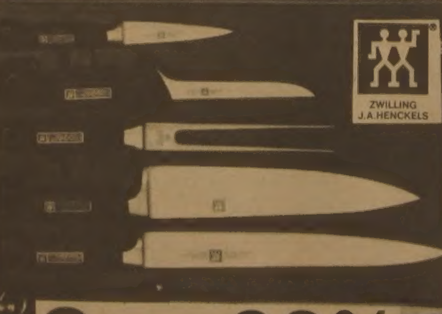
세째날은 눈까지 내려 돌아다니기조차 불편했다.

그래도 마인은 열심이었다. 반면 김형사는 투덜거리며 마인을 원망했다.

김형사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잠이나 실컷자는게 소원이었다.

그가 어느 마을앞에 이르렀을때 등산차림의 사내가 저만큼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어느 놈은 팔자가 좋아서 이런 겨울에도 등산을 다 다녔까하고 생각하면서 그는 걸어갔다.



Save 20%

◉품질 보장。
◉각종 부엌칼 종류 및 가위。
◉견고한 독일제 유명메이커。

〈빅·세븐 선물센타〉

660 Bloor St. W.
TORONTO, ONTARIO
☎ : 533-7966, 533-8110
대표 김영철

개 업 인 사

CRYSTAL'S FLOWER MART

제가 금번 블루어×스파다이나 부근에 꽃가게를 OPEN하여, 인사드립니다.
지나시는 길에 1차 들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박동호 올림

CRYSTAL'S FLOWER MART
366 BLOOR ST. W. ☎927-8730
☆각종행사및 모임에 주문배달함.
영업시간 : 월~토 오전9시~밤11시

교역자청빙

본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역자를 청빙코자 합니다.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1매 (영문및 한글) 사진1매(반명함판)
● 기 일 : 1983년5월20일까지
● 보내실곳 : 18 Creighton Dr. Dundas, Ont. L9H 3P7 최태호 장로

해밀톤 한인연합교회
교역자 청빙위원회

◉선명한 화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사하는
◉선미광고만이 한국에서…

직수입 비데오 테프 1300개

◉연속극 TV문학 ◉영화 ◉쇼…

(2시간 드라마)마지막 겨울, 첫사랑, 강노인의 미소, 조가피, 무덤, 산울림노을, 독짓는 늙은이, 목석부인, 조춘, 역마, 강촌, 도사공, 도시 사냥꾼, 산골나그네, 잔인한 도시, 어금니 한개, 손, 불새,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단독강화, 산불, 보물소동, 취국, 가면무도회, 금시조, 산상에 서다, 마 청산댁 돌녁, 소장수, 하루방, 사람의 아들, 고향, 무명, 겨울 꽃, 10F, 심마니 역마 김약국의 딸들, 돌의 초상, 파도, 형제, 낙엽, 배따라기, 청산댁 불타는 다리 갈대를 기르는 땅, 목시의 바다, 갯마을, 과부, 모밀꽃 필 무렵, 안개강 강비천 불볼이, 창부타령, 나닷가 소년, 도사고, 막차로 온 손님, 열녀문, 겨울 꽃, 어느 여름방학, 안중일기, 삼포로 가는 길, 석화고 아름답게…70여편
1. 기독교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사람들의 아들, 주여 우리에게 축복을, 사라소니, 하늘나라에, 목자
2. 불 교 : 등신불, 석남사, 종, 무명, 다정다한, 초파일특집, 팔만대장경
3. 기 타 : 일대일, 여감방, 북경열차, 흑녀, 7인의 협객, 하늘나라 엄마별과, 연산군, 로멘스, 북레기, 마마, 부산항, 머저리들의 건 겨울, 순 악질 여사, 별들의 고향, 춘향전, 장훈, 여수407 미워도 다시한번 밤이면 내리는 비, 열상, 흑녀, 벌레먹은 장미, 하늘나라, 터질듯한 이 가슴, 아기별, 대결투, 0점하의 새끼들, 독사, 초분, 영원히 가슴에… 50여편
산유화, 풍운, 해빙, 미련, 어제 그리고 내일, 복청풀장수, 개국, 세자매 약속의 땅, 은장도, 사랑의 팬, 고백, 친구야 친구, 못잊어, 아내 서궁마마, 보통사람들, 시장사람…등20여편
영11, 쇼쇼쇼, 쇼2000, 여의도 1번지, 특집, 젊음의 행진, 우리들의 애창곡 특집 드라마, 농촌드라마, 영어교육, 아동프로 300여편

◉지방대리점 문의환영 미도파3 FLOOR
454 BLOOR ST.W TORONTO B 531 6430 R363 6523

83年型승용차「安全度 톱10位」를 알아본다

1位 쉐볼레 실레브러티
最下 프랑스製 르노퓨조

교통안전국조사 충돌 테스트資料를 토대로

쉐볼레 실레브러티(Celebrity) 승용차가 하이웨이에서 가장 안전한 83년형 자동차라고 자동차안전센터가 25일 밝혔다.

반면 워싱턴 D.C.의 소비자그룹에 따르면 가장 안전하지 못한 승용차는 프랑스제 르노 퓨조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전국하이웨이 교통안전국(NHTSA)이 실시한 각종 승용차들의 충돌테스트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분석되었는데 NHTSA는 자동차안전센터가 분석한 「자료」와 「안전도순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안전센터는 「비록 지난해 NHTSA의 충돌테스트가 82년형 모델을 대상으로 실시됐지만 올해 「안전도순위」에 기록된 승용차들은 작년에 충돌테스트를 받은 82년형과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83년형 모델들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안전도순위」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톱10은 미국산차 5종, 일본차 4종, 유럽차 1종등으로 나타나 미국산차의 안전도가 일본차에 비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①쉐볼레 실레브러티
②볼 보 DL
③혼 다 시 빅
④쉐볼레 카마로
⑤혼 다 어 코 드
⑥도요다 셀리카
⑦캐 딜 락 세 빌
⑧닛 산 센 트 라
⑨쉐볼레 캘버리어
⑩포 드 머 스 탱

한편 NHTSA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안전도 톱10내의 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안전도검사는 크기가 비슷한 승용차들의 정면충돌시 운전자들의 머리부상 정도에 의거 실시되었다)

1)쉐볼레 실레브러티(4도어)
2)볼보 DL(2도어)
3)혼다 시빅(2도어)
4)쉐볼레 카마로(2도어)
5)혼다 어코드(4도어)
6)도요다 셀리카(2도어)
7)캐딜락 세빌(4도어)
8)닛산 센트라(4도어)
9)쉐볼레 캘버리어(4도어)
10)포드 머스탱(2도어)

특별야외교육프로그램

매주 토·일요일 코트라이트센타

코트라이트·센터(Kortright Centre)는 5월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11시에 강변끄브랑길(River side Meaders), 연못공부(Pond Study)등의 특별야외교육프로그램을 가진다.

근처 험버계곡(Humber Valley)을 끼고 안내자에 의해 물춤(Water Dance), 물의 형태(Water Cycle Pattern)견학과 수산자원에 관한 영화를 감상한다.

또한 물과 관계된 재미있는 놀이도 열리는데 각자의 코에 물이 들어갈때, 이를 견디는 참을성 테스트 게임도 있다.

한편 주변 연못의 질펀한 늪의 생태를 견학하며 그물과 망태를 가지고 수초와 동물들도 채집한다.

또한 진드기를 잡아 실험해 본다.

코트라이트·센터의 위치는 하이웨이400의 북쪽으로 가다 메이저·메켄지(Major Mackenzie Dr.)를 만나 서쪽으로 가며 파인·벨리·드라이브 남쪽으로 가면 된다.

약간의 입장료가 부과되며 문의전화는 661-6600.

봄은 자동차정비계절

타이어체크 중요부분 차지

봄철과 함께 자동차 정비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자동차의 안전은 생명과도 직결되며 적시적소의 정비는 자동차의 수명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윤활유의 체크및 교환, 트랜스미션오일 체크, 밧데리용액의 점검, 라디에이터의 용액체크, 에어휠터, 브레이크오일 체크등은 기본적인 정비이다.

또한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관심도 대단히 중요하다. 에어의 레벨뿐만 아니라, 균형, 로테이트(자리교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굳이어(Good Year) 캐나다의 덕·가우티어씨는 "일반적으로 큰 이상이 없는한 타이어 교환을 하지 않는데 어느정도 거리를 뛴 후에는 정기적으로 전후타이어를 교환해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적합한 타이어 교환거리는 2만마일(32,000Km)마다 앞타이어를 뒷타이어와 교환하는 것이 좋다.

교환할때는 특별히 래디얼(Radial)타이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하며 교환시에는 꼭 페인트로 구석에 표시를 하면 좋다.

온타리오 모터리그의 루디·레몬드씨는 겨울철 타이어(Snow Tire)는 속히 교환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윈터·타이어는 훨씬 개솔린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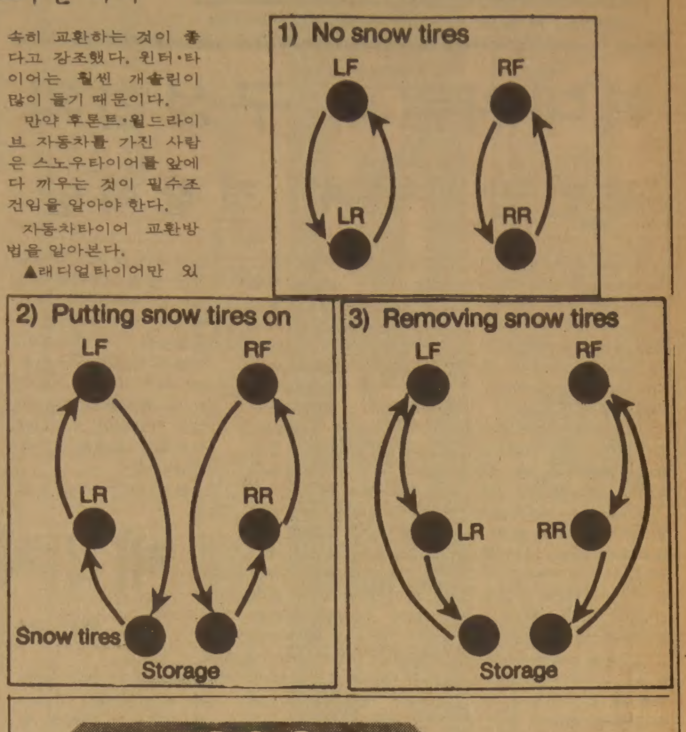
만약 후론트·윌드라이브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스노우타이어를 앞에다 끼우는 것이 필수조건임을 알아야 한다.

자동차타이어 교환방법을 알아본다.

▲래디얼타이어만 있는 경우(4개)

▲스노우 타이어를 교환할 경우

FOUR TIRES USING RADIALS



〈연재소설〉

혼돈

글·이태준 그림·최미경

제2편 착수

외로운 영수는 애자를 생각하며……

"우리가 남성들의 위에 설려면, 그들을 짓밟아 줄려면 돈이 있어야 해요. 돈이요. 나는 긁어낼 거예요. 내가 낚아올린 대어들의 뱃속에 부정하게 삼켜져있는 재물들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긁어낼 거예요. 유리씨가 나를 도와주면 나와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유리의 손목을 꽉 잡고 그녀의 응답을 가다렸다.

"굉장히 소란스럽고 부작용이 많을 것인데요"

유리의 목소리는 칼칼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긍정을 의미하고 있었다.

◆

영수는 눈을 떴다. 정오가 가까워 오도록 늦잠을 잤어도 밤샘을 한 것처럼 머리가 무겁고 고단했다.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겨우 잠이 들어서도 꿈을 많이 꾼 때문이리라.

"애자, 김애자!"

그는 속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 보았다. 그녀의 얼굴을 그려보았다.

붓끝으로 그려놓은 것 같은 눈섶 밑에 우수가 흐르고 있는 맑은 눈, 처지지도 들여다 보이지도 않는 오똑한 콧날,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는 입술, 그러나 그녀의 얼굴을 덮어오는 음흉스러운 얼굴이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이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빴다. 그러나 그는 다시 침대에 주저앉고 말았다.

지금 자기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있으면 미쳐버릴것 같았다. 전화기를 잡아 당겨 다이얼을 돌렸다. 아직 애자는 자고 있다는 유리의 대답이였다. 그냥 끊기가 멋적어 어제밤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다 전화기를 놓았다.

그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외로운 생각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어머니는 지금쯤 어디에 계실까? 떠나시던 전날밤 장정이 다된 나를 갓난애를 껴안듯이 꼭꼭 안아주던 어머니는 어디에 계실까?)

그는 어머니의 품안이 거북스러우면서도 오랜만에 맡아보는 비릿한 어머니의 냄새라 싫지 않았다.

"영수야, 자니?"
"아니요"
"영수야, 자니?"
"아니요"

어머니는 간헐적으로 똑같은 질물을 하실뿐 말이 없었다. 그는 졸리우면서도 어머니가 없는 집과 그는 어떻게 될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영수야, 자니?"
"아니"

아쉽고 서럽고 허전하면서도 복잡하고 골치아프던 문제를 해결해 버린것 같은 개운한 마음이기도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부부라는 법적인 사슬을 끊어버리면 서로가 혐오해야할 불행한 관계였다.

그들은 서로 팽팽히 맞서 무시와 냉대로 끝도 없는 평행선을 달리다가도 피할 수 없는 교차점에 이르면 격렬한 충돌을 불꽃을 일으키곤 했는데, 치열한 백병전을 연상케했다.

무력으로는 도저히 대항이 불가능한 어머니는 가끔 고의 응원을 요구해왔어도 그는 어머니가 원하는만큼의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

"영수야, 자니?"
"아니요"

힘으로나 어려서부터 단련해온 그의 무예로 본다면 아버지를 때려뉘이고, 어머니의 한을 풀어 드린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였으나 어머니가 주장한 것처럼 아버지는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쓴 짐승에 난봉꾼이며, 불한당일지라도 그에게는 역시 어머니와 동등한 부모였다. 그런 이유에서보다도 그의 판단은 아버지가 나쁜것 만큼 어머니도 나쁘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만을 저지할 수가 없었다. 그가 기껏 어머니를 도우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중간에 서서 어머니가 맞아야할 아버지의 주먹을 대신 맞아주거나 싸움을 말리는 정도였다.

그는 애자의 얼굴을 상상해보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어머니와 같은 악착이 숨어있을것 같지는 않았다.

(계속)

식자안내
컴퓨터사진식자기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
○빠른 서비스
○책종류 환영함
토론토 한국일보사
(416)533-2361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한인 영어연구원장)

CAN I TRY THIS ON?

미국의 백화점 같은 곳에서 옷을 구경한 후 맘에 드는 것이 있으면 「입어 보아도 될까요?」 Can I try this on?하고 종업원에게 이야기 하면 대개 Sure, the dressing room is right over there.(물론이지요. 옷 입어 보는 곳이 바로 저기 있읍니다)라고 대답을 해준다.

try on이 「옷을 입어 보다」는 말이니까 「이 코우트를 입어 보아도 될까요?」는 Can I try this coat on?하면 되고 「이 바지를 입어 보아도 될까요?」는 Can I try these pants on?이라 하고 「이 반지를 끼어 보아도 될까요?」라고 할 때에는 Can I try this ring on?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의류나 보석류, 신발 같은 것을 이야기 할 때 try on이 사용된다.

본인의 옷을 사는 경우는 직접 입어 보니까 옷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지만 다른사람의 옷인 경우 「가지고가서 맞지 않으면 바꾸러 와도되는가?」를 묻게 되는데 이럴 때는 Can I bring it back if it doesn't fit?라고 하면 된다.

A: May I help you?
B: Yes, please. I'm looking for a trench coat.
A: What size do you need?
B: 37 regular.
A: How do you like this one?
B: It looks nice. Can I try this 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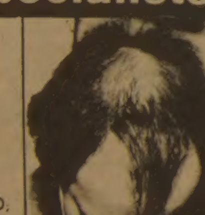
A:도와 드릴까요?
B:네, 트렌치 코우트를 찾는데요.
A:어느 싸이즈로 필요하십니까?
B:37 보통입니다.
A:이 옷이 어떠세요?
B:괜찮은데요. 입어 봐도 될까요?

※trench coat:방수외투.
※dressing room:옷 갈아 입는 방.
※regular:규준의, 표준의.
37 regular(size)하면 「37 보통사이즈」의 뜻이 된다.
bring back:다시 가지고 오다.

이연재물의 필자가쓴 「생활영어」 1, 2, 3, 4권을 구입하려면 B.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S.A. 로 수표나 모니오더를 보내면됩니다. 가격은 권당 12달러(판매세및 우송료포함) 전화:(312) 966-4050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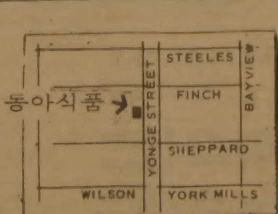
새로 머리가 자라나는 것을 보십시오.



YES IT'S TRUE . . .

우리 전문가들은 당신의 원하는 만족한 결과의 85%이상 비율로 성공해왔음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머리털에 대한 모든 분석과 최신시설로써 머리털성장 주기를 조사함으로써 당신의 머리털 손실을 감소해 드립니다.
우리훈련된 전문가는 머리털의 근본문제를 해결합니다.
머리털이 빠지는 원인을 찾아 자신을 갖고 치료합니다.
고민 있으신분, 당장 연락바랍니다.
You're only your hair to Gain!
◉미리 약속시간을 정하십시요.
▲매일(월~금):오전11시~오후8시
▲ (토):오전9시~오후3시
'HAIR RESEARCH CENTRE'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동아식품
5월9일
그랜드 오프닝
초대합니다
드디어 5월8일(일요일) 오후7시 교민 여러분을 모시고 개업식을 갖고자 하오니 많이 왕림하셔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통지는 안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송종호·김홍배 드림



5568 YONGE ST.
☎ (B)222-8989 (R) 663-1339 Mr. 김 (R) 881-6431 Mr. 송

감사말씀

존경하는 선생님!

금번 저희들 아버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시는 길을 다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먼길을 왕림하셔서 애통하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심에 대하여 어머님을비롯한 우리 온 가족은 충심으로 선생님께 감사말씀 올리면서,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영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미망인	권장례	삼남	송명호
장남	송석호	장녀	송진희
차남	송주환	사위	최남축

실협뉴스
K.B.A.NEWS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G1K8
533-7923-4
COMPLAINT CENTRE
(HOT LINE)
533-8344

확대위원회 구성합의

성인잡지관계 경찰회담

외설잡지 소지죄목으로 기소중에 있는 회원들과 앞으로의 대책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4월28일 상오10시 Human Rights Commission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인권옹호위원회측의 Dr. Ubale 인종문제위원장과 Mr. Khim Tan, 경찰측에서 4명(Superintendent McCormack은 급한 공무로 불참), 협회측에서는 차선경 회장, 서준경 이사장, 이춘수 부이사장및 강공선 상담실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실협측은 (1)우리 실협회원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돈을 벌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명백히 하고, (2)따라서 시의 by-law가 보류되었다 하더라도 진열에 관한 규정은 자진해서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경찰측은 자신들도「외설」여부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선의의 소매상만 고발조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4)외설잡지로 판시되는 간행물의 목록을 제시하든지, (5)아니면 합법적인 간행물만 공급하는 업자명단을 제시하여, (6)회원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7)일부 고객의 고발에 의한 산발적인 소매상 고발조처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외설잡지가 대중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입을 근절하는 정책수립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원대한 꿈을 안고 이민온 회원들이 기준도 분명치 않은 성인잡지 판매로 고발당하여 형사상의 전과기록이 남음으로써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지장이 생긴다면 이는 그들의 장래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문제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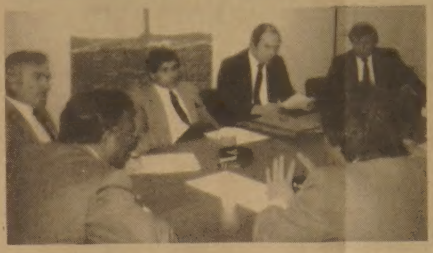
이에 대해 좌중의 관계자 일동은 현행법상으로 obscenity에 대한 정의가 분명치 않음을 인정하고, 소매업자들의 애로가 있음을 이해하여 이번 모임을 예비회의로 하고, 인권옹호위원회가 이러한 제반문제에 관련이 있는 이민국, 검찰국, 경찰당국, 인권옹호위, 실협등 광범위하게 인선을 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구체적인 토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협회에서는 다음 회의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성인잡지 판매의 한계성과 명확한 구분을 규명하여 회원들이 부당하게 고발당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을 당국이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계속 회원에 대한 고발을 자행하는 경우 기한부로 성인잡지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매스콤을 통하여 사회문제화함으로써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을 차선책으로 강구하고 있다.

여하튼 협회는 이 문제가 일반 상거래 문제를 떠나 국가의 형법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를 중대시하고, 항구한 대책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편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상기한 확대회의는 5월12일(목) 상오10시에 역시 Human Rights Commission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고 인권옹호위의 Mr. Khim Tan이 전해왔다.



◆경찰과의 회담광경

제2차 회의 개최

벡커의 담배가격 경쟁

4월11일의 제1차회의에 이어 벡커의 담배가격 경쟁으로 피해를 입고있는 회원들은 5월2일 하오4시30분부터 제2차 회의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제1차 회의에서 벡커와 동일한 가격으로 실협의 통일된 싸인을 붙이고 대항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세금이 인상되어 그들의 가격이 세금만큼 인상되더라도 현재의 가격을 계속 유지하며, 이것이 원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협회에서 모금운동등을 통하여 손해를 보완해 주기로 합의한바 있다.

이번 제2차 회의는 싸인부착후의 반응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고자 소집된 것이다. 본회의 참석회원은 15명으로서 송홍일, 김성규, 박영빈, 이선화, 원성호, 이기대, 임진수, 홍한기, 박기봉, 정형출, 최무원, 임방식, 김남헌, 윤호석, 함덕상 제씨였고, 협회측에서는 차선경 회장, 이춘수 부이사장, 정상우 재무, 홍사털 이사가 참석하였다.

관계회원들의 보고를 종합해 보면, 통일된 싸인 부착후 3-4개 스토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벡커측의 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계회원 스토어의 매상은 일률적으로 크게 상승하여, 1회원의 예를 들면, 주 $5,500이었던 매상이 이웃 벡커의 담배가격 인하로 $4,500로 떨어졌다가 싸인을 붙인 후에는 $6,500로 상승하였다고 한다.

이익 없이 바쁘게만 되어 별로 재미를 못보고 있으나 참가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싸인 결정은 여러가지 면에서 잘한 처사라고 말하였다.

벡커본사와의 접촉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차회장은 김병진 벡커후랜차이스협회장의 중개로 불원간 양측대표가 회담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회담이 성립될 경우 대할 협회측의 방침이 이미 서있고, 가능하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사업상의 교량을 가설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보겠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만약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체회원에게 호소하여 20여개 피해스토어의 결손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뭉친 실협의 위력을 실증해 보겠다고 자신있게 말하였다.

이날 회의에서의 통일된 의견은 제1차 회의의 결의사항을 재확인하고, 이에대한 대책은 전적으로 협회 집행부에 위임하여 그 결정에 따르자는 것이었다.

이날의 주요결의사항은 앞으로 5월10일경에 있을 담배세금 인상으로 인하여 벡커측이 현재의 가격을 올릴 경우 세금인상폭만큼만 인상할 때에는 현재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이상을 인상할 시에는 이를 재검토하기로 결의하였고, 장기전에 돌입하게 되는 경우의 관계회원의 결손부분은 협회장이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벡커측과의 회담이 이루어지면 그후에 제3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하고 산회하였다.

4월분 PANASONIC 당첨자

심태섭 Popular Variety
배기웅 Peter Variety
장석숭 Tony's Variety
김강선 Southgate Smoke & Gift
유진순 Garth Variety(Hamilton)
정상무 Family Mini Mart
유 인 Super Save
강순구 Clair's Convenience

당첨회원에게는 소매 $34.95 상당의 Solar Power 포케용계산기 1개씩이 쎄일스맨에 의하여 직접 상점으로 전달된다.

「뎀스터」빵회사 루트재조정

보다 효율적인 써비스기대

그동안 O.K빵을 취급하는 「뎀스터」회사의 빵배달써비스에 헛점이 많아 상담실을 통하여 계속해서 스토어별 문제점을 전달하고, 근본적인 개선책 강구를 촉구한 결과, 5월9일(월)부터「루트」를 재조정하여 보다 능률적인 써비스에 임하겠다는 서신이 도착하였다.

서신 내용에 의하면 "5월9일부터 토론토지역의「루트」를 재조정하여 운전사들에게 보다 많은 써비스시간을 허용하여, 회원의 써비스에 임하게 하였다"고 하고, "따라서 날짜에는 변동없이 배달시간이 일부 변동될 것이므로 문제가 있는 회원은 해당 Dealer나 Salesman에게 연락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과연 어느 정도의 개선이 실현될 것인지 기대해본다.

회원 1천2백 돌파

4월말현재 집계

4월30일 현재 실업인협회에 등록된 회원총수는 1,202명으로 판명되었다.

Grocery와 Variety업을 주축으로 회원의 이익을 위해 활동을 전개하던 협회가 확고한 기반을 정립하게 됨에 따라 여타업종에 종사하는 실업인들을 위한 활동도 전개해야 한다는 일반의 요청에 부응하여 작년총회 이후 문호를 개방한 결과 여타업종 회원만도 159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제1차로 56명에 달하고 있는 도나츠업과 Fast Food 업종회원을 위한 커피협약이 유리한 조건으로 성립되어 그 가치를 실증하였고, 그밖의 업종에 대해서도 Group Buying을 할 수 있는 회원수에 달하는데로 업종별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단기간내에 가입회원이 급증한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동안의 협회활동실적, 가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 지구협회 가입, 단체치아보험 성취, 저렴한 회비(연 $50)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200명을 돌파한 회원의 내역을 아래와 같다.

구 분		회원수
Grocery & Variety업		819
그 이외의 업종		159
준회원(외국인)		43
▲지구회원	(Hamilton)	85
	(London)	46
	(Oshawa)	31
	(Barrie)	15
계		1,202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 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 532-7909
549 BLOOR ST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될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 병 헌

Welcome to K.B.A.

— 금주의 신입회원 —

Piano Service, Tuning & Repair	이동훈	Sesame Treat	장정애
Duncan Restaurant	장원국	Town Ice Cream & Donut	김진형
Canada Orient Trading Co.	홍승규	Renforth Gift Shop	정 영
Rose Garden Flower Shop	김상숙	Midi Variety	홍전선
Compulace Inc.	홍성호·김성구	First Convenience	양추재
Harry's Restaurant	지수환	Moss Park Discount	김기봉
People's Appliance Service	원종성	Apollo Discount Store	정상열
Kim Chi Canada Ltd.	장신봉	Dixon Tuck Shop	허종수
Harold's Deli	이기대	A & A Variety & Snack Bar	김재윤
Muffin Break	이훈모	49er Milk & Variety	윤애경
Jasper's Deli	한기연	Open Grocery	박재국
The Harvest	유진선	Scotty's Variety	김창교
Smile Donuts	배석구	Pik kwik	박 영
Harvest Donut	김기배	Paris Variety	김진형
Donuts & Dogs	정찬관	Olympic Milk & Variety	장득남

성장하는 우리실협
성공하는 나의사업

Enjoy Coca-Cola
Trade Mark Reg

ATTENTION
ALL KBA MEMBERS

Coca-Cola회사에서는 1983년5월16일부터 보다 나은 써비스를 위하여 배달방식을 개편합니다.

일부 회원상점의 배달회수와 쎄일즈맨이 변동될 것이며, 아울러 많은 상점이 전화 주문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변동기간중에 회원들은 충분한 주문을 함으로서 상품이 떨어지거나 이윤의 손실을 보지 않도록 권장하는 바입니다.

배달계획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쎄일즈맨 또는 Mr. Bill Irwin (424-6256)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감사하고 보다 능률적인 써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EFFECTIVE MAY 16, 1983, THE COCA-COLA COMPANY, IN ITS EFFORT TO PROVIDE INCREASINGLY BETTER SERVICE, HAS RESTRUCTURED ITS DISTRIBUTION SYSTEM.

SOME KBA RETAIL STORES WILL REALIZE CHANGES IN SALES PERSONNEL AS WELL AS DELIVERY FREQUENCY. WE WILL ALSO PUT INTO EFFECT A NEW METHOD OF TELEPHONE SELLING FOR VARIOUS OUTLETS.

DURING THIS PERIOD OF TRANSITION, WE ENCOURAGE ALL DEALERS TO ORDER EXTRA INVENTORY, THUS MINIMIZING THE RISK OF STOCK-OUTS AND PROFIT LOSS.

ANY SPECIFIC QUESTIONS REGARDING DELIVERY SCHEDULES WILL BE ANSWERED BY YOUR CURRENT SALESMAN, OR DIRECTED TO MR. BILL IRWIN AT 424-6256.

WE THANK YOU FOR YOUR PATRONAGE AND LOOK FORWARD TO SERVING YOU MORE EFFICIENTLY IN THE FUTURE.

Coca-Cola Ltd.
46 Overlea Boulevard, Toronto, Ontario M4H 1B6

한국일보

IPU 서울總會 확정

어제理事會 北韓측議題 채택않기로 議決

票대결서 84대45 기권14票

【헬싱키=聯】 한국은 29일 질긴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IPU(국제의회연맹) 차기총회를 서울로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제132차 IPU이사회는 이날 상오 9시(현지시간)부터 핀란드국회 의사당 1층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총회 장소문제 재고를 요구한 추가의제문제를 논의한끝에 이를 공식의제로 채택치 않기로 84대45 기권18이란압도적 다수로 결정함으로써 차기총회를 서울서 열기로 한 작년 9월의 로마총회 결정을 거듭 확인했다.

이날 이사회는 상오9시부터 추가의제 논의에들어가 마다가스카르 소련 몽고 3개국이 북한을지지하는 발언을했고, 영국 모로코 스리랑카 3개국이 한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 이사회의장 에밀·리브리에로씨는 이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것이냐 아니냐를 표결에 붙였다.

의제에는 다마가스카르 기니 짐바브웨 북한을 한덩어리로 묶는 제1추가의제와 몽고 베닌이 제출한 제2추가의제, 소련과 폴란드가 제안한 제3추가의제가 있는데 의장은 2, 3의제가 제1의제와 같은 것이므로 2, 3의제에 대한 표결은 중단시키고 제1의제에 대한 표결만으로 이를 추가의제로 공식의제로 채택치 않기로 확정한 것이다.

의제문제표결에 이어 토고는 이번 이사회의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민주적으로 논의를 하지않고 표결에 들어간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대표는 IPU 차기총회가 대화와 조화가 있는 곳에서 열려야 하나 서울은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북한은 서울총회에 반대한 국가들의 의견에 따라 서울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대표는 웅변조의 연설로 서울이 총회장소로 적당치 않다고 말했으나 장내의 반응은 지극히 냉담했고 모두들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이어 나이지리아는 지극히 논리적인 연설을 통해 우리는 과거 민주주의원칙을 존중하여 정치제도와이념이 다른 쿠바와 동베를린의 IPU총회에도 참석했었다면서 우리는 모두 IPU의 단결을 도모하기위해 반대한사람들까지도 서울로 가야 한다고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도덕과 규율에어긋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같은 행위를 제재하기위해 윤리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의했다.

IPU이사회는 상오 10시5분(현지시간)차기총회에 대한 논의를 완전히 종결지었다.

"油제품 公課金 점차 축소"

常委질의·답변

"三寶증권 時在부족액 197억"

"油價 관리제도 改善 용의는"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일간에 걸친 제116회 임시국회를 閉會한다.

국회는 29일 油價문제를 다루기위한 經科·商工委 연석회의와 아울러 각常委를 일제히 열고 소관부처에대한 마지막정책질의를 벌였다.

經科·商工委……李元範, 朴完奎의원(民韓)등은 『정부가 油價가오를때는 모든부담을 국민에게 떠맡기면서 내릴때생기는 이익은 차지하려하고있다』고 말하고 현행30%의 국내油價 반영률을 바꿔 1백%반영토록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朴의원은 『정부는 금융비를 계산치 않아야하는 私기업인 精油5社에 금융비를 계상해주어 막대한 특혜조치를 베풀고 있다』면서 『석유사업기금조성과 운영에관해 국회의동의를 받을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의원들은 또 ▲石油價의 自律化용의▲高油價체제언제까지 지속할것인가▲油價재조정요구등을 추궁했다.

답변에나선 金총리는 『3·7制는 KDI총람모델에 넣어 검토해본결과 가장 합리적인 代案이었다』며 『앞으로도 油類제품에 대한 각종公課金은 備蓄목표가 달성되고 油種간 가격격차가 해소될때 점차로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徐相喆 동자부 장관은 『앞으로 油價책정 방법문제는 별도로 안고있는 문제로서 계속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유가조정이 있은 금년 4월19일 이전중 소급되는 추가인하분은 9백70만 배럴이라고 밝혔다.

財務委……姜慶植 재무장관은 三寶證券 時在부족사건에대한 非公開 보고에서 三寶증권의 時在부족액은 債券 1백76억원 株式21억원등 모두 1백97억이라고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그는이어 三寶증권의 時在부족 원인은 三寶가 大小窓口事故를 계속은폐하고 내부수습을 하려다 무리를 빚은데다 계속증권社의 首位를 지키려는 실력이상의 의욕때문인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보고한것으로 전해졌다.

姜장관은 또 姜慶振사장등 관계관이 부동산31억9천만원, 동산39억8천만원, 三寶주식 50억원, 사고압류재산 10억원등 1백31억7천만원을 자진해서 내놓았고 부동산 31억9천만원중 16억3천2백만원, 동산39억8천만원중 10억7천4백만원, 사고압류재산10억원중 6억7천6백만원을 각각 현금화하고 三寶주식 50억원을 싯가로따져 1백억원으로 換算, 모두 1백33억8천2백만원으로 메우게하고 나머지는 계속 메우는방법을 연구하고있는중이라고 보고한것으로 알려졌다.

立法豫告制 의결

閣議, 20日前公告

국무회의는 29일 立法豫告制시행에 필요한 法令案立法豫告에관한 규정案을 의결, 法令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입법전 20일이상 신문이나 官報에公告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수있도록 했다.

이 규정案은 또 예고한 法令案에 대해 公聽會를열어 이곳에서 제안되는 의견을 立法에반영할수있게 했다.

李外務, 부시禮訪

安保지지에 感謝

【워싱턴=聯】 訪美중인李範錫외무장관은 28일하오 백악관으로 조지·부시美부통령을 예방하고 한국안보를위한 미국의 확고한지지에 대해 감사의 뜻을표했다.

◇全대통령이 濟州道政을 순시, 업무보고를 받고있다.

"韓·파關係 발전돼야"

全대통령, 파키스탄紙 회견

【방콕=聯】 全斗煥대통령은 29일 한국과 파키스탄간의 경제현실로보아 두나라간의 협력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있다고 말하고 『양국간 實質協力관계를 촉진하기위해서는 현재의 領事관계를 外交관계로 발전시킴으로써 양국의 기업들이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상대방 기업인들과상호이익이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수있도록 해야할것』이라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이날 파키스탄의 최대日刊紙인 장紙의 1面톱으로 보도된 카릴·울·라만사장과의 書面會見에서 『우나라는 같은 아시아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으로서 각분야에서 형편이비슷하고 특히 경제분야에서서 상호보완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이같이 파키스탄과의 修交희망을 피력했다.

全대통령은 韓·美간 합동훈련인 「팀스피리트83」과 관련, 일부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대해 『지난76년이래 매년 시행해오고있는 이훈련은 예상되는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韓·美 양국군의 방위태세를 개선하기위한 순수한 방위적성격의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우리는 금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의 규모와 기간을 북한측에 사전 통고했을뿐만 아니라 이훈련의 방어적 성격을 북한측이 확인할수 있도록 북한을 초청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GNP의 20%이상을 軍費지출에 할당하는 북한은 지난10년간군사력을 급진적으로 증강시켜 군사력전반에 있어 한국에 비해 2대1로 優位를 점하게 되었으며 우리는 그들로부터의 계속적인 군사적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 『북한은 무력으로 한반도 赤化의 妄想아래 한국에대해 군사행동을 취하고자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日本의 방위비 增額공약에 언급, 『自國의 안보는 自國이 책임져야 한다는 일반론에서 볼때 日本이 자체방위를위해 보다 노력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본다』고 말하고 『다만 日本의 防衛力강은 이지역에서의 미국의방위능력을 보완하고 일본자체방위요구를 충족시키는 선에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두長官 解任권고 否決

運營委 어제表決

국회運營委는 29일상오 전체회의를 열고 民韓黨이 제출한 盧泰愚내무부장관과 李奎浩 문교장관에대한 해임권고결의안을 表決에 붙여 在席21명중 찬성6 반대11 기권4표로 否決, 각각 폐기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民韓黨의원이 전원찬성한데반해 民正黨은 전원반대했고 국민黨과 議政同友會는 기권했다.

表決에앞서 民韓黨의 朴寬用의원은 盧내무장관에대한 解任案제안설명에서 『고문보다 더 악랄한범죄는 없으며 엄중한 책임을따지고 경찰의 신뢰회복과고문방지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강구하기위해 解任권고결의안이 통과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생활活動의 출發은 女性으로부터 시작됩니다.
國內第一의 女性 週刊誌인 주간女性은 홍지재정을 활用하시는 廣告主 여러분의 廣告下命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 가장 效果的인 廣告媒体
주간女性
(416) 533-2361

社 告

한국일보사 새姉妹誌 發刊

月刊 월드테니스

3百萬 테니스同好人의 길잡이

5월1일자 發賣 本格레저스포츠專門誌

국내외 테니스總情報…생동감 넘치는畫報

앞서가는 신문, 독자와 함께 숨쉬는 한국일보가 야심에찬 새로운 월간지를 만들었습니다. 「테니스 한국」의 내일을열고 우리테니스가 세계로 뻗는 길잡이가 되고자 「월드 테니스」라고 이름붙인 새 월간지는 생동감넘치는 화려한 화보와 함께 각종 해외정보에서부터 국내단신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수록하여 3백만 동호인의 벗이 될 본격 레저 스포츠전문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는 이때 「월드 테니스」의 발간은 우리테니스계의 활력소구실을 맡게 될 것이며 또한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성껏 제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있으시기 바랍니다.

◇체 제=4·6배판
◇면 수=236면 (컬러104면)
◇발행일=1983년 5월1일
◇값=2,500원

한국일보社

社會漫評

國 敎?……

결지었다.

地平線

꽃철인 4월이 가고 내일이면 잎철인 5월이 열린다. 멀리 제주도의 활금빛 유채꽃 물결치듯한 꽃이랑의 화신을 시발로 북상하던 꽃의 제전도 물을 차례로흩어 스쳐가고 이제 절계는 보다 아름다운 연한연두빛 신록의 너울로 뒤 덮였다.

누리는 화사한 빛과 생신한 기운속에서 5월을 맞는다. ▼옛시인은 『꽃피면 비바람이 잦다』고 읊으며 꽃샘바람에 덧없이지는 꽃의 한때를 짧은 삶에 비기고 애를 태웠다. 과연 꽃철 4월은 비바람도 잦았고 또 이에 못지않게 우리들에 꼬리를 물어 세간의 인심은 조지훈의 시「낙화」에서처럼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의 감상 같았다. ▼개나리 진달래가 진지 이미 오래고 또 앵두와 매화는 시들었으며 라일락도 한물이 갔다. 이렇게 꽃철을 보낸 지금의 마음은 한시바삐 푸른 잎철이 열려 그 싱그러운 신록 그늘에서 우선 한숨을 돌리고 천륜도 인륜도 무너진듯이 음산했던 4월의 사건들을 세월과 더불어 멀리 떠나 보냈으면 하는 따름이다. ▼이처럼 봄을 봄답지 않게 했던 여러 곡절과 사연을 떠나 보내고 새 마음으로 잎철을 맞는다해도 신록한쪽 그늘에서 꽃은 여전히 핀다. 이제부터는 모란과 작약의 철이다. 김영랑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라고 노래했으나 이는 끝내 시인의 감상일뿐, 절계는 그꽃이 피면 되려 첫여름으로 기운다. ▼지금쯤 남도 그윽한 산골짜기에서는 향그러운 차 잎새가 돋아날때 이다. 대숲이나 전나무 그늘에서 자욱한 안개와 맑은 이슬을 받으며 눈 튼 차나무의 새 잎새를 한잎 한잎 따 모아서 느긋한 불에 덖고 손으로 비비기를 거듭하면 향그러운 신차가 된다. 우리 토박이 말로는 「작설」 또는 「작설차」라고 한다. ▼다관에 맑고 차디찬 자연수를 끓여서 백자 찻종에 담아 마시면 혀끝에 향기가 감돌며 마음은 잠시 청정한 제자리를 찾게 된다. 신록의 5월은 모두들 한모금의 신차가 주는 뒷맛 같은 그런 평상심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싱그러운 잎철이 되었으면 한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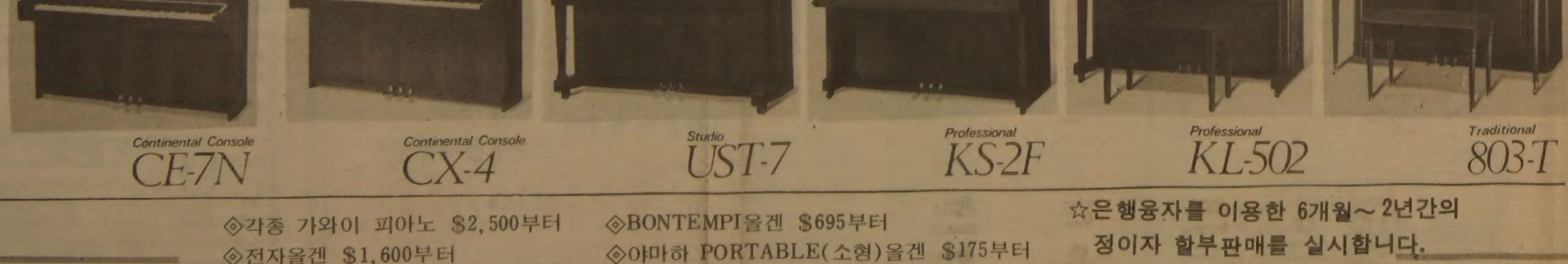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 은퇴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영 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개업5주년 기념 할인 대매출



Continental Console CE-7N
Continental Console CX-4
Studio UST-7
Professional KS-2F
Professional KL-502
Traditional 803-T

◇각종 가와이 피아노 $2,500부터
◇전자올겐 $1,600부터
◇BONTEMPI올겐 $695부터
◇야마하 PORTABLE(소형)올겐 $175부터
☆은행융자를 이용한 6개월~2년간의 정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합니다.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11

가와이 KEYBOARD CENTRE (모짜르트 MUSIC CENTRE) 대표 윤 호 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社說

對話政治의 基調유지
—임시國會, 生産性이 아쉬웠다

대체로 순탄했고 약간의 곡절도 없지않은 가운데 어딘지 개운찮은 여운을 남기면서 4월 임시국회가 오늘로 20일간의 회기를 마친다.

애당초 이번 임시국회는 제5공화국발족과 더불어 출범한 11代국회가 후반 2년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소집되었던 것이다. 院의 구성에 이어 國政의 여러分野에 걸쳐 국민의 궁금증 풀이에 연결된 對政府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與·野간의 爭點이라고 알려졌던 政治議案의 처리를 주목케 했었다. 그 과정에서「새 議政像」과「民主主義 土着化」가 진단될 참이었고, 복수政黨의 存在樣式에 대한 자가省察도 바람직했다.

우선 총체적으로 평가해서 與·野간 對話政治의 기조는 유지된 셈이고, 구시대에 상견되던 權威主義대 極限투쟁의 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議員들의 질의내용은 비록 次元높은 系統性은 빈약했다해도 그런대로 솔직한 문제제기와 일련의 究明노력을 헤아리게 했다. 與黨의원들의 발언에서도 가끔 뼈대있는 지적이 관찰됐으며 한편 野黨의원들은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살리고자 애를 쓴 느낌이다.

하나 일부각료들의 답변내용은 문제의 회피와 미봉에 흐른 인상이 불투했다고 하며, 특히 어떤 경제각료들의 답변이 불성실하다 하여 말썽된바도 있었다. 野黨의 攻勢에 대한 제1선 방어의 주역이 與黨과 行政府의 어느쪽이었는지도 생각해 볼만했다.

무엇보다도 與黨은 이번국회에서 能動的 進取性보다는 守勢的인 입장에서 개별적 문제를 다루지 않았는가 성찰해 봄직하다. 民主主義의 土着化, 나아가서「政治의 先進化」를 위해 무엇을 이룩했는지 自問함이 좋을것같다.

다른한편 野黨들은 자체의 존재의의를 과연 무엇으로 밝혔는지 물음직에 自信의 근거는 적이 희박했던것 같다. 일련의 攻勢도 龍頭蛇尾꼴로 되었다. 예컨대 政治議案을 차치할때 마바지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최대爭點이 되다시피했던 內務·文敎양장관 해임권고결의안은 29일 運營委에서 간단히 부결되고 말았다.

民韓黨은 그결의안 제출이「政治的 의지를 밝히자고 한것이지 꼭 통과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는 식으로 술회했다고 한다. 그럴바에는 처음부터「展示效果」를 구상할 대신 작금의 內務·文敎行政에 드러난 몇가지 문제점의 시정대책을 다지고 보장을 얻어내는 착실한 접근방법이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된다.

政治議案의 경우 國會法개정과 地自制실시등에 걸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證券市場의 公信力을 높이기위한 공개적인 궁금증 풀이도 그다지 신통한바 없었다. 그저 그런대로 與·野간에 지속적 對話가 거듭 다짐되었다고는 하겠다.

이번 국회에서는「새 議政像」논의가 별로 부각되지 않았는데 피차간에 力學관계의 상대적 限界性이라는 現實認識이 성장한 까닭인지 모른다.「政治의 先進化」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중요한 징표를 나열할 수 있으나 시기적으로 가장 강조될 것은「밝은 政治」즉 公開政治라고 보게 된다. 그것이 政治에 대한 국민信賴회복의 으뜸가는 요청이기 때문이다.

與黨의 참을성있는 雅量도 좋고 野黨의 자제력있는 타협도 좋으나 그 調和속에 무엇인가 生産的 前進이 보다 크게 확인돼야 할것으로 믿는다. 그동안에 관찰된 토론의 平行線이 앞으로 曲線的인 접근을 보여 議政의 보람을 입증해주기 바란다.

落胎 그 현실과 理想
—青少年만큼 既婚부부 比重크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른척하는 경우가 이세상엔 흔히 있다. 명분을 위해 현실을 외면하는 현상이다.「낙태」라는 말로 통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도 그런 경우에 속한다고 할수있다.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고있어 정확한 실태파악도 안된 형편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한해 1백만에서 1백50만건의 낙태수술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엄격한 모자보건법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형법의 규정을 어기고 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현실과 명분의 불균형을 덜기위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 가을 정기국회에 내놓을 작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8일 보사부가 밝힌 개정안의 윤곽은 작년초에 내놓은「임신중절 합법화」정책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임이 밝혀졌다.

이번에 밝혀진 보사부의 개정안은 한마디로 말해서「미혼모」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의 낙태수술을 합법화함으로써 무자격 돌팔이들의 피해를 입지않도록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또한 청소년의 性문제를 가정의 테두리안으로 끌어들이는 방편도 될것이다.

원래 낙태를 합법화하는 문제는 도덕적인 입장에서 우리 사회에서도 시비가큰 문제다. 그러나 어쩔수없이 개방돼가는 성도덕을 외면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만을 강요하면서 미혼모와 의료질서의 파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더이상 모른척할 수도 없게됐다.

한걸음 나아가서「원하지않는 임신」이 반드시 미성년자에 국한되지않는다는 사실도 이번기회에 결론을 내야하리라고 생각된다. 정확한 조사가 없어 장담할 수는없지만 한해 1백만~1백50만으로 추산되는 낙태수술의 태반은미성년자보다는 역시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조사에 의하면 남편이있는 44세이하의 부인중 49.6%가 한번이상 낙태경험이 있다. 이중에서「건강상의 이유」는 겨우 13.4%에 지나지 않는실정이다.

바꿔 말해서 가정주부들의 낙태수술에서 86.6%가 법으로 금지돼있는「출산조절」을위한 것이었다.

잘 알려진것처럼「낙태합법화」는 전세계적인 추세여서 현재 불법화하고있는 나라는 10개국정도로돼있다. 낙태합법화가 갖는 도덕적 의미를 둘러싼 논쟁을 염두에 두더라도 우리에겐 심각한 문제를 더이상 모른체할수 없는 형편이다.

그것은 한해 1백50만까지 추산되는 음성적 낙태수술을 정상적인 의료채널로 끌어들여야된다는 것이고, 또한 심각한 인구문제다.

「현실화」란는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인구정책의 입장에서 출산조절을 원하는 모든 부부에게도 합법화의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어보인다.「영세민으로서 이미 2자녀를 가진 부부」라는 제한된 허용범위는 설득력이적다. 도덕적인 논쟁의 각도에서 보자면 영세민이나 2자녀란는조건은 애초에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임신중절보다는 아예 원하지않는 임신을 막는것이 최선의 길이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여 합리적인 대응을 하는것이 옳다. 미성년자나 낙태만을 인정하고, 그보다 숫적으로 더큰 기혼부부문제를 외면하는것은 합리적인 태도라고 할수없을 것이다.

또한 일부의 윤리적 반대론을 염두에 두면서 미성년자 낙태합법화가몰고올 성도덕의 문제에도 적절한 계몽·교육 프로그램을 생각해야될 것이다.

敗亡 8돌맞는 오늘의 베트남
가난과 戰爭의 악순환
「아름다운祖國」건설 한낮꿈
泰·캄·中共등과 紛爭 계속

『침략자들을 격퇴하면 우리는 우리의조국을 10배나 아름답게 재건할 것이다』越南戰이 한창이던 69년 胡志明이 한 말이다.

그러나 美軍이 마지막으로 越南땅을 떠난지 10년, 또 越南이 越盟에의해 붕괴, 패망(75년 4월30일)한지 8년이 흐른 오늘날 베트남은 전쟁아닌 평화, 가난아닌 풍요한 삶, 예속아닌 자유와 독립이란 이상향건설에 실패했을뿐아니라 오히려 전쟁때보다 낡아진 것이없다.

월남전은 끝났지만 베트남은 反政세력들과 캄보디아, 라오스정글에서 또 한때 우방이었던 中共과도 총격을 주고받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胡志明이 장담하던「아름다운 조국」은 간데없고 오늘의 베트남은 전쟁과 가난, 부패와 예속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한채 찌들고 있을 뿐이다.

월남전은 베트남의 군사력을 1백만으로 늘리는 유산만남겼다. 이 거대한 군사력은 또다른 전쟁을 필연적으로 유발케했고 이군사력을 유지키위해서는 국가총예산의 50%가량을 쏟아넣어야했다.

현재 베트남이 직면한 가장 큰 시련은 경제파탄이다.

베트남은 처음 월남의 수도였던 사이공을 胡志明市로 명칭을 바꿔 그들의 착취와 나태, 방종과 부패로 비유했던 자본주의체제를 척결해 보려했으나 좌절되고 말았다.

베트남당국은 어쩔수없이 79년8월 越南땅에 다시 자본주의의 자유시장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기까지 했다.

밀수품거래 이권청탁 外貨암거래등으로 치부하는 관리부유층도 새로이 등장했다.

노동자의 월임금이 2백동 (1만5천원상당)으로 서민들은 가난에 찌들어 하루를 연명하고 있으나 식사한끼에 3백동하는 레스토랑이 부유층으로 성업중인 모순을 낳고있다.

그래서 舊越南사람들은 지금보다는 부유했던 지난날의 향수에 젖어 共産主義에 쉽게 적응하려들지 않는다.

패망후 90만명이상의 월남인이 船上난민이되어 필사적으로 베트남을 탈출했고 40만명가량이 유엔주선하에 미국으로 이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베트남은 현재 세계 12개빈민국에 들어가고 있으며 개인당 GNP (국민총생산)가 1백60달러라고 IMF (국제통화기금) 가 밝힌정도로 경제난은 극심하다.

베트남 집권층은 이빈곤의 악순환을 30년간에 걸친 전쟁후유증과 미국의 경제재재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정책의 실패에 있다.

【崔海雲기자】

슐츠 美國務, 往復외교 難航계속
제마옐과 會談後 "難題많다"토로

【베이루트28日AP=聯】이스라엘·레바논간의 철군협상타결을 위해 中東왕복외교를 벌이고 있는 조지·슐츠 美국무장관은 28일 베이루트에서 아민·제마옐 대통령을 포함한 레바논지도자들과 회담을 가진후『상당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음을 알게됐다』고 말해 그의 첫 왕복외교가 난항할 것임을 시사했다.

예루살렘에서 2일간 이스라엘지도자들과 일련의 회담을 가진 슐츠장관은 이날 베이루트에 도착, 최근 폭탄테러로 파괴된 西베이루트주재 美대사관을 둘러본후 로버트·딜런대사 및 모리스·드레이퍼 중동특사와 함께 바브다에 있는 레바논대통령관저를 방문, 레바논지도자들과 오찬을 포함한 5시간에 걸친 회담을 가졌다.

호네커 東獨評議長 西獨방문 취소결정

【東베를린28日=聯】동독국가평의회의장 (국가元首) 에리히·호네커는 28일 동독에서 발생한 3건의 西獨人사망사건으로 빚어진 兩獨관계악화와 관련, 본방문계획을 취소했다고 동독관영 ADN통신이 보도했다.

ADN은 호네커의 서독방문취소결정이 공산당고위관리에 의해 東베를린주재 서독대표에게 통보됐다고 전했다.

서독정부대변인도 로마를 방문중인 헬무트·콜수상이 이같은 결정을 전달받았다고 전했으나 동독측 조치에 대해서는 즉각 논평하지 않았다.

外信안테나

가뭄·火山등 세계곳곳에서 災難
에콰도르 山沙汰로 1백명 壓死

【키토·제네바AP聯=聯】1백명이상의 희생자를 낸 에콰도르사상최악의 산사태가 중부 침보라소省에서 발생한것을 비롯, 이디오피아의 극심한 가뭄, 방글라데시의 태풍, 파키스탄의 火山폭발등 많은 재난 사고로 세계 여러곳에서 인명및재산피해가속출하고 있는것으로 28일보도됐다.

오스발도·우르타도에콰도르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27일 침보라소省의 쿤치에서 산사태가 발생, 이곳을 지나는 팬·아메리카 고속도로를 덮치는 바람에 버스에타고있던승객등1백여명이사망했다고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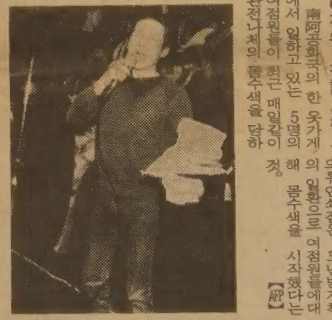
中共 廣州市長서리 葉劍英아들을 任命

【홍콩=聯】조만간 사임할것으로 알려지고있는 중공의 사실상의 국가원수 葉劍英의 아들 葉選平이 지난27일의 廣州市제7차 인민대표대회 常任委員會 12차회의에서 廣州市시장서리로 임명된것으로 28일 보도됐다.

臺灣문제양보없다 鄧小平, 對美 경고

【北京AP=聯】중공의 실권자 鄧小平은 28일 중공은「중대한결과」를 무릅쓰지 않고서 對대만문제에 관해 양보할수는없다고 미국에 경고했다.

北京을 방문한 사쿠라우찌·요시오 (櫻內義雄) 前일본외상은 이날 회견에서 鄧小平이 자신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미국에대해 경고했다고 전했다.



◇가수로 데뷔한 英女王침실侵入犯 버킹검궁전에 침입해 물의를 일으켰던 마이클·패건이 가수로 데뷔, 런던의 한 술집에서 노래하고 있다.【런던28일AP聯=聯】

蘇, 시리아에 潛艦기지
이紙 보도 2隻 영구配置, 정기交替

【텔아비브·예루살렘UPI·AP=聯】소련은 시리아에 보다 깊숙이 개입키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리아의 지중해항구도시 타르투스에 잠수함기지를 설치했다고 이스라엘일간지들이 28일 보도했다.

히브리語일간지 하아레츠는 아날소련이 이새로운 잠수함기지에 2척의 잠수함을 영구배치, 이들을 정규적으로 교체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마아리브紙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하아레츠紙는 또 소련잠수함들이 지난 수개월전부터 타르투스항을 이용해 왔다고 밝히면서 이잠수함들은 이항구에 배치된 다른 소련선박들을 지원해왔다고 전했다.

하아레츠紙의 이같은 보도에 대한 공식논평은 나오지 않았으나 이스라엘軍소식통들은 소련선박들이 수년전부터 이항구를 이용해왔다고 말했다.

하아레츠紙는 또 타르투스항에의 이같은 소련잠수함배치가 레바논戰발발이래 소련의 對시리아군사개입이 증강되어왔음을 반영해주는 새로운 사태발전이라고 지적했다.

◇母港연안서 엔터프라이즈號 좌초 美國의 核추진항모 엔터프라이즈號가 8개월간의 작전활동을 끝내고 28일모항인 앨러미더해군기지로 귀항하던 도중 조수에 밀려 모항에서 1㎞떨어진 샌프란시스코灣연안에 좌초해 10도정도 기울어졌으나 밀물이 들어온후 좌초상태에서 벗어났다.【샌프란시스코28日AP聯=聯】

中共, 徵稅制 도입
史上 처음, 6월부터實施

【北京=聯】중공은 중앙통제위주의 경제를 차츰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28일 중공사상최초로 전국적인 徵稅制를 도입하기위한 공식조치를 취하고 이를 오는6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어림잡아 내년1월부터 대부분의 중공국영기업들은 자체이익이나 손실을 모두 국가로 돌리던 과거방식을 버리고 그대신 국가에 조세를 납부하는형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海外토픽

옷모두벗겨 몸수색 여점원 抗議로해고

南阿공화국의 한 옷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5명의 여점원들이 최근 매일같이 완전나체의 몸수색을 당하는데 항의하여 이를 거부하자 해고됐다고.

요하네스버그 근처에 값싼 의류를 팔고있는 이 의류연쇄점은 도난방지책의 일환으로 여점원들에대해 몸수색을 시작했다는 것.【AP】

張吉山 <1729>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89)

『나는 지난번에 마누라가 향교 근처의 서낭당에서 사물을 잡혔다고, 유생들께 끌려가 대신 장형을 당했수』

『우리 동네 두레패들이 백중날 호미씻기를 한구나서 동재를 지나다가 좌수에게 혼쭐이났지』계손이 다시 말을하였다.

『이와같이 양반들은 저희끼리 구름같이 높고높은 생각과 성인처럼 고매한 학문을 주고 받아, 일찌기 오랑캐를 면하여 대국인과 같이 된답디다. 그래 양반 사대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내려준 것이 무엇이오. 약한 놈에게서 빼앗고 어리석은 자 후리고 논밭에 엎드려 거름주는 농투산이 업신여기고, 흉황에는 멀건 죽사발이오도 외칠 때에는 저희는 도망가고 우리는 산천을 막으라든가 아니면 적의 천예가 되라하오. 이러한 난세의 고난 중에 마음도 몸도 붙일데없이 그저 병 들어도 약 한첩 못쓰고 의원 모실 돈도 없어 비나리 고사에 푸닥거리가 고작이오, 바다에 빠져 죽고 못먹어 부황나고 아귀 같이 다투다 죽고 애 낳다 죽고 맞아 죽어도 그저 수팔자이나 오구굿이 고작이니, 이 천한 백성은 누굴 믿고 살란 말요.

양반은 저희끼리 모두가 밖에서 떠돌어온 것으로 제쳐하고 안쳐하며 말의 끝마다 씨마다 도깨비 노릇하는 격으로 모를 소리만 지껄입디다. 그래도 백성들은 나무에 서낭 산에 가서 산신님 바다에 용왕님 부엌에 조왕님 집터에 터주님 다 받들고 이 터전서 밭 붙이고 맘붙인 생각만 믿구 있단 말이오. 이런 백성들을 오히려 능멸하고 음흉이다 사교다 미신이다하여 내치며, 이제 더욱 누천년이 되어 이 터전에 엎드려진 삼을 제석님 부처님까지도 업신여기니 우리 단군 성조님때부터 이 터전 지켜오고 이 백성 살펴온 우리 무당만 신이 남은 백성들 마음을 보살펴야 하오. 사선 곰이나 담고개 같이 관재(官災)에 빠지거나, 지난 병인년처럼 흉황 역질로 생지옥이 벌어지면 언제든 힘을 합쳐서 물리치자는 것이오. 그래서 우리 계는 사천(四賤)뿐만아니라 땅 없는 유민, 갯가의 사공 어부 모두 한 식구로 알고 저들을 한마음으로 잡아야 합니다』

여환은 자신이 나설 자리가 아니라 입을 다물고는 있으되 과연 오계손이 해서 무게의 총대가 될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를테면 무게원 모두가 보살행을 이루자는 뜻이 아니랴.

『우리 계에서는 시주나 걸립을 받아 아껴 쓰고 남겼다가 그러한 이들을 활인(活人)하는데 쓰지요』

전성달이 말하자 모두들 입을 모아 계에서 비용을 거두자고 다투어말하였다. 원향이 조용히 말하였다.

『박수님들 보다는 부녀자인 저희 만신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백성들 속 사정을 잘압니다. 제의 비용은 각 고을마다 젊은 만신이 주동이되어 걷어서 좌장님께 전해올도록 하십시오. 그랬다가 청천이로 구월산 맞이굿에 오실제 여기와서 모으면 될거예요』

모두들 그것이 좋겠다고 찬성이었고, 그 뒤에 의논은 다음에 좌장들만이 여는 작은 계회를 어디서 갖느냐는 것이 되었다.

한국일보·533·2361

名人戰 第14기

第15局 第6譜 74~117 (각5시간·덤5집반)

白 (6段) 張秀英〈3勝0敗〉
黑 (6段) [illegible]〈2勝2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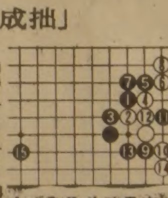
白、「弄巧成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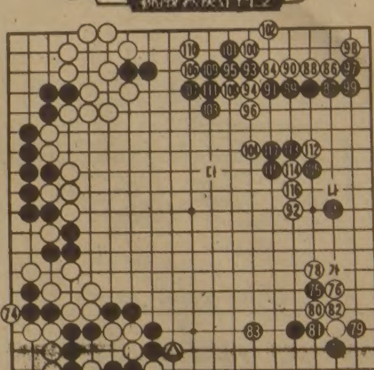
白74로 좌하의 싸움이 일단락되자 黑75로 우하귀를 씌워 또다시 이곳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白76으로는 속수이긴하나 참고도처럼 白2에 모붙여하여 이하 14까지 되는것도 정석의 일종이다. 수순중 白6으로 7에 때리지 말아야 하며 黑은 11에 치중하는 수가 긴요하다. 아마추어 중급이하의 바둑에 곧잘 나타나지만 수순을 잘못 밟기 쉬우므로 제시해둔다.

그것은 그렇고 白76에 대한 黑77이 또 변화수다. 黑「간」에 을 막고 싸우고 싶다」는 흐름이다 黑83까지 그렇못해 보이지만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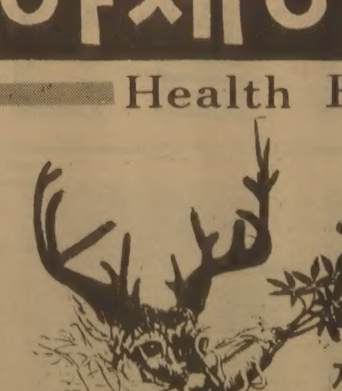
白84이하의 변화에서 98까지 94는 당연한 [illegible] 黑103까지는 [illegible] 黑93따위는 무리인줄 알면서 [illegible] 세를 만회하려는 반발이 [illegible] 白104는「나」에 [illegible] 을 젖히고 1·2는「다」[illegible] 의 바둑을 [illegible] 수도 있 [illegible] 6단은 사전작을 [illegible] 할 요량이었는데 오히려 [illegible] 화근이 되어 黑1~5, [illegible] 바둑을 잡고 일이 복잡 [illegible] 각하다.





SANYO 전자계산기
전자저울
□저렴한 가격
□각종 신품과 중고품
$295로부터
AKRON CASH REGISTER
248 Browns Line, Toronto, Ontario M8W 3T4
(416) 251-7054

아세아한약방
Health Food Center
길림산녹용, 진품웅담
원녹용, 야생녹용
특별세일
지방문의환영
⊙관절염 특효약
⊙산삼 도착
⊙자동전자약탕기
⊙종합비타민 ⊙우황청심환 ⊙홍삼 ⊙간장병
⊙인삼 ⊙NUT 일체 ⊙보약 ⊙비만증 ⊙부인병
⊙웅담 ⊙녹용 ⊙중풍 ⊙신경통 ⊙양기부족
⊙산삼 ⊙사향 ⊙심장병 ⊙고혈압 ⊙위장병
645 BLOOR ST. W. TORONTO
☎ : (416)530—0522, 530—4900



Masa
진짜 일본음식
Japanese Restaurant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
977-9519
All major credit cards accepted
195 Richmond West

⊙개인당 $32.95부터
(세금및 팁 포함)
—50명 이상을 위주로 —
Fruit Punch, full dinner, 포도주 2잔, 술, 뱅쿠엘 룸, 하루밤 숙박 등등.
Holiday Inn
1250 Eglinton Avenue East, Don Mills
(416) 449-4111 Catering 매니저 (Alison MacKinnon)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창립 7주년) $595.00
분납가능 SANYO
취급품목
한글, 영문 타자기
금고, 캬비넷, 책상,
각종 계산기, 각종도장
Tel. 532-0111
622-6754
교포 경영
김성수

"精油5社 특혜 理由는"

——국회常任委 질의·답변

經科·商工委 연석회의

▲李元範의원(民韓)질의=석유가격의 관리제도를 과감히 전환할 용의는. 민간회사의 제품가격을 언제까지 정부가 쥐고있을것이며 이로인하여 精油社에 대한 過보호등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이는데 차제에油價자율화에 대한 정부의견해를 밝혀라. 우리나라의 油類가격은 거의모두가 외국에 비해 높다. 이는 과도한 公課金때문인것으로 아는데 국민경제의 기초에너지에 이같은 많은 公課金을 부과하는것이 과연 옳은가.

특히 휘발유의 경우는 高率의 특별소비세로 인하여 외국에 비해 倍이상이 비싼 실정으로 석유는 油種別로 代替性이커서 결국은 휘발유를 써야할곳에 다른 代替연료, 이를테면 가짜휘발유의 범람등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언제까지 석유등 에너지가격의 수준을 현재와 같이 높은수준으로 유지할것인지.

▲魯昌泰의원(국민)=국제原油價 인하분의 1백%全量을 국내油價인하에 반영할것을 먼저 정부측에 촉구한다. 정부는 이번 국제油價인하분을 국내油價에 반영하고있는 이른바 「7·3」制와 全量을 국내유가에 반영하는 경우 사이에서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어느쪽이 유리한지 利害得失면을 분명히 밝혀달라. 국내油價에 고작30%를 반영하고도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지장을 받지않을것인지 부총리의 소상한 답변이 있길바란다.

▲金順圭의원(議政)=일반적으로 경제정책 體系가 일방적으로 油價인하비율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정책의 公共性과 관련, 정책선택후의 효과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국민적합의가 있어야한다.

정책선택후의 補償원리에 따른 부작용제거를 위한 事後조치는 무엇인가. 이번油價조정은 수출품의 해외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킨것이 아닌가. 또 油價하락혜택을 민간부문에 돌려 有效수요를 자극하는 것이 낭비이고 경제성장정도가 미미할것이라고 보는 정부의 견해는 偏見이라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석유안정기금은 83년말까지 남아돌아갈 전망이고 原油價는배럴當최고25달러에서 최저10달러로 상당기간 안정될 것으로 세계석유문제전문가들은 관측하고있는데 정부는 油價조정조치를 재조정할 용의는없는가.

▲高源駿의원(民正)=정부는 原油價인하분의70%를 留保하여 이를 關稅와 기금으로 흡수하고 原油價가 反騰할경우 이를완충財源으로 사용한다고했는데 5%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原油價가 내리지않을 경우보다 오히려 세금을 더많이 거둬들이는결과가 되었다. 앞으로 原油價가 더내려갈경우에도 稅收감소를 이유로 관세를더 부과할 생각인가. 또 앞으로 원유가가 反騰하거나 換率 또는 국제金利가 올라 국내油價를 인상할 필요가 있을때도 똑같이 경기침체에 따른 稅收감소를 내세워 關稅率을 내리는데 반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가.

국내油價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석유안정기금과관세중 어느쪽을 먼저 완충財源으로 할것인가.

▲黃炳晙의원(民正)=앞으로 석유관련사업의 개발이 현단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원유가가 장차 다시 상승했을때 가격완충장치가 사전에 마련되어야한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과도한 에너지수입의존도를 줄이기위해서 에너지의 완충자금마련과 自給度의 提高가 요구되지않겠는가.

▲朴完奎의원(民韓)=과거 油價가 올랐을때 국민이 모든부담을졌으므로 이번인하혜택은 마땅히 국민이 가져야 한다. 부총리는 당초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7·5%로 책정했는데 이는 原油價가 떨어질것을예상하지않았던 수치다. 그렇다면 떨어진 현시점에서경제성장률을 修正해야한다고 본다. 어째서 석유제품原價에 도입원유 금융비용을 계상해주는지 이유를 설명하라.

油價하락 成長7·5%달성무난
農用유류免稅·水稅부담 해소를
질문 답변

◇29일 국회본회의는 內務, 文敎장관 해임권고결의안에대해 贊·反투표에 들어갔다. 사진오른쪽民正黨의원들은 起立으로 反對를, 맞은편 民韓黨의원들은 着席으로 贊成을 표시했다. 【鄭在斗기자찍음】

精油5社는 정부가 투자하지않은 명백한 私기업인데 어떻게해서 정부는 막대한 금융비를 제품원가속에 포함시켜주어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는가.

▲金埈成부총리답변=原油價인하분을 全額 국내油價인하에 반영하면 소비자물가 0·2%인하효과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원유가인하분을 70%를 국내유가에 반영할 경우와 30%를 반영할 경우등을 KDI의 總量모델에 대입시켜 조사해본결과 後者가 유리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우리의 油種간에는 가격체제가 歪曲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과거엔 휘발유값이 터무니없이 비쌌고 벙커C油나 나프타값은 이것이 공업원료라는 측면에서 염가였다. 그동안 動資部가 전문가들에게 用役을주어 국내油價체제를 국제유가체제와 보조를 맞추기위해 연구를해왔으나 결론은 당장시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점차 시정해나가기로 했다.

지난3월14일에 OPEC(石油수출국기구)가原油價인하를 정식 결정을해서 3월15일 국회經科委에서 油價문제에 대한 질의가있어 「7대3」원칙을발표했다. 油價를 다루는 상임위가 상공위인데 결과위에서 발표하게된점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석유제품에대한 公課金은 備蓄목표가 달성되고 油種간의 가격격차가 해소되면 줄여나가겠다.

앞으로 原油價가 더내릴경우 「7대3」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것인가의 문제는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정책을 정해야 하리라고본다.

原油價가 하락하여 1·4분기중 성장률이 10·9%나 달성되어 금년도목표7·5%달성은 무난하다고 본다.

▲徐錫俊동자부장관=우리의 原油도입은 장기안정적 공급의 기본구축이중요한것이며 現物 시장은 우리여건아래서 크게 활용될수없다. 그러나 82년부터 現物시장이 공급과잉 되고있어 장기안정도입의 기본범위내에서 현물시장을 활용, 부담을 줄여나가겠다.

해외工事代金으로 原油를 받는것을 일체不許하고 있다. 다만 해외건설의 간접적인 지원을 위해 건설發注가 많은국가에대해 외교적인 차원에서 국내精油회사가 해외건설업체를 통해 原油를 도입케하고있으며 리비아에서의 하루 2만배럴수입이 좋은예다.

精油社는 사업의 특수성때문에 정도의 차이는있으나 공급자신용인 유전스를 사용하고있다. 유전스 비용을 반영시켜 주지않을경우 精油業은 막대한 금융비용이 늘어 기업지탱이 어렵다.

農水産委

▲金永光의원(국민)질의=세계穀物主産地인 미국농산물 減産결정에따라 그 파급영향이 우려된다. 小麥, 옥수수등 우리 수입품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방안은. 農地稅의 免稅點을 引下해야되지않나. 農家負債해소방안으로 석유안정기금을 농가부채용으로 轉用할 용의는. 농촌공업촉진책을 마련해 농촌인구 대도시流入을 막지않겠는가. 농민을 위한 利益團體를 구성할때가되지 않았는가.

▲趙尙來의원(民正)=원천적인 식량자급을 위해서는 農地를 확대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를 위한 간척지 확대방안은. 農外所得개발촉진법이 아직껏 마련되지 않은 이유는. 농민의생산의욕고취를 위해 漁業用과 같이 농업용油類를 免稅조치할 생각 없는가.

▲趙鍾益의원(民韓)=정부가 油價인하를 계기로공산품및 생활용품값을 전부 인하하면서도 農資材값만 인하않는 이유는. 규산질비료보다 질이 좋은 珪灰石이 있는데도 규산질비료를 계속 보급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것이 아닌가. 농기계보급을 민간으로 이관했는데도 아직 農協창구에 재고가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朴敬錫의원(民正)=秋穀 수매가격 결정시기를 4, 5월로 앞당기는 早期收買價결정 방식을 도입할 생각은 없는가.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증산효과라는 측면에서도 早期收買價결정은 바람직하지않은가.

농수산부와 산하 단체들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도 比較優位論에 밀려 제위치를 못지키고 있는게 아닌가.

▲鄭輝東의원(民正)=위飼料용 大豆의 제조를 위해 미국에서 年間 1억5천만달러 상당을 동방유량과 제일제당, 삼양식품등3개社와, 두부용으로 歡식품조합과 일부식품회사에서 따로따로 수입하고 있는데 외화낭비를 막기위해 이창구를 一元化할 용의는.

농산물수입상통례로 돼있는 0·3%의 커미션을 국내생산原價에 반영치 않고 各社의 社主가 착복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진상은.

▲吳上鉉의원(民韓)=지방자치제가 재정자립도라는 이유로 留保되고 있는데 전국 1천4백71개 단위농협중 1천3백47개 單協이 黑字조합으로 육성된 시점인 만큼 농협법을개정해 이들조합부터 자율화하고 이를통해 地自制실시의 기반을 조성할 용의는.

농민의 가장큰 民願중의 하나가 水稅이다. 전국 1백3개조합의 81만여명 조합원은 3천7백29억원의 長期債에 매년 4백35억원의 조합비를 부담하고있는 실정이다. 농수산부는 이러한 농민부담을 해소시킬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가.

수입자유화정책에 농수산물부터 비교우위론을 적용시킨 발상은. 금년 보리농사는 大豐이 예상되는데 全量수매와 적정한 수매가격은 보장할수 있는가.

내무·문교 解任권고결의안 提案설명

運營委

▲내무장관解任권고결의안 제안설명(金寬用의원·民韓)=국민의 기본권은 天賦權으로 신체의 자유는 보호되어야한다. 日帝부터 自由黨시절을 거쳐 제4공화국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물론 특수기관이라고 지칭되는 기관에서했던 엄청난 고문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소위 새시대에서도 고문이 계속 되는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지금까지 많은 고문사례를 보았고 정부는 고문을 근절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지난번 金根祚씨 고문치사 사건이 또생겼다.

고문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우리 모두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사회는 근대화되고 변천되고 있지만 日帝때부터 내려온 고문은 근절되지 않았다.

만약 金씨가 죽지않았다면 고문은 알려지지않았을 것이고 金씨사망을 계기로 고문근절의 轉機가 마련되어야 한다.

"拷問근절 정부의 意志를 보여야"내무
"文敎정책 亂脈·청소년대책 不在"문교

고문보다 더 악랄한범죄는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엄중한 책임을따져야하고, 경찰이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再發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한다.

이 解任권고 결의안이 가결됨으로써 책임행정구현과 인권옹호에 대한 정부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全斗煥대통령은 12代대통령취임사에서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을 해방시키겠다고했다. 비록 解任案은 제안하지 못했지만 우리 民韓소속의원81명의 요구는 국민적여망에 따른 정당하고 적절한 요구다.

국회는 힘이나 數가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理性이 지배하는 국회임을 이기회에 입증시키자.

▲문교장관해임권고결의안제안설명(徐淸源의원·民韓)=李奎浩문교장관은 3년가까이 문교행정을 펴오면서 劃一性과 硬直性으로 일관해 온 정책의 빈곤으로 대학입시제도, 졸업정원제, 학원사태, 교수재임용제등의 亂脈相을 드러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어왔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문교정책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최근에는 청소년대책의 不在로 인해 高校生들이 디스코클럽에서 춤을 추다 화재로 10여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國費유학생 선발시험에 까지 不正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주어 더이상 문교행정을맡길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

大邱의 디스코클럽 화재사건만으로도문교장관의퇴진이유는 충분하다. 작년지하철 붕괴사고때 서울市長이 물러났는데 어린학생들을 희생케 한 장관이 그대로 머물러있다는 것은 납득이가지않으며 우리黨이 퇴진을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

메아리

착한 사람들

요즘 우리 사회에 날뛰고 있는 惡들은 우리를 경악시킨다.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험해졌는가 싶고 이런다가는 목숨하나 부지하기가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땅에 떨어진 信賴와 敬意를 짓밟으며 惡은춤춘다. 사람들은 붐난 디스코홀의 非常口를 찾듯이 정신적으로 右往左往한다. 세상에는 온통 惡한 사람밖에 없단 말인가.

사람은 정말 늑대인가, 아니면 羊인가. 사람은 羊의 너울을 쓴 늑대인가, 아니면 소수의 늑대가 다수의 羊떼속에 섞여 살고 있다고 해야 옳은가. 兩者擇一 자체가 잘못이라면 인간은 늑대이면서 羊인가, 아니면 늑대도 羊도 아닌것인가.

인류의역사는「萬人對 萬人의투쟁」이라고 단정한 홉브스같은사람은 「인간은 동포에대해 늑대」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惡意에 차있고 자기보다 강한 殺人者가 무서울동안만 착해진다고 推斷한다. 이들이 볼때 인간의 역사는 惡의역사다. 諸王은 전쟁을 일으켰고 히틀러와 스탈린은 수백만의 유태인과 政敵을 죽였다.

사람이 羊이냐 늑대냐하는 의문은 西歐의 神學이나 東洋倫理思想의 근원적인 문제가 되어왔다.

기독교에서는 아담과 이브의 原罪때문에 그 후손인 인류가 타락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노력만으로는 타락에서 빠져나올수가 없었다. 인간을 위해 죽은 예수의 출현으로 비로소 인간의타락은 구제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리히·프롬의 해석에 의하면 舊約聖書자체는 인간이 근원적으로 타락했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아담과 이브가 神을 배반함으로써 인간은 스스로의 意識을 가지게 되었고 이 배반행위야말로 自由로 향하는 인간의 제1보였다. 인간은 낙원을 쫓겨났기때문에 자기의 역사를 만들고 인간적인능력을 발달시켰다. 사실 인간이 자신의 善을 믿기시작한것은 르네상스때부터였다. 인간의 권위가 회복되면서 인간은 인간을 신뢰하게되고 인간自身에 自信이 생겨 善은 謳歌되었다.

그이후로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히틀러와 스탈린이 등장하고 原爆이 투하되고 함으로써 인간의 파괴된 정신은 다시 惡으로 향하는 성향을 드러내는것 같았지만 인류는 아직도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지않고 있다.

東洋에서는 性惡說과 性善說의 대립이 유명하다. 荀子의 性惡說은 인간의 본성은 원래 惡이요 그 善한 것은 人爲的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세계에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물질이한정되어 있기때문에 서로 싸워 해악으려고 한다. 지배자들은 인간의 이런 욕망을 제한하기위해 욕망충족의 기준을 만들었고 이것이 곧 禮儀다. 이에비해 인간은 본디 착한 것이라고주장하는 孟子의 性善說은 국가권력의 강제없이도 道德만으로 천하가 다스려진다는 견해를 가졌다. 결국 儒家에서는 극히 일부외는 性善說을 편들었고 이것이 定說이 되어왔다. 人間善의 鼓舞다.

이런 善惡思想의 역사에서 용기를 얻을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실망할것은 없다는 것이다. 사람은 착하다. 사람은 善앞에서는 눈을감고 惡에는 눈을 크게 뜨는 버릇이 있다. 善은 값싸보이고 惡은 비싸보인다. 그러나 惡意만 가득찬것같은 사회의 內面에는 찬란한 善意와 뜨거운 사랑이 수두룩히 있다. 惡의 승리는 오래가지 않는다. 惡意는 자기毒을 스스로 마시고 惡人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법이다. 사람에게는 항상 惡德과 같은 수만큼의 선행이 있다고 한다. 惡은 善을 가르치기위해 自生했다가 自滅한다.

프랑스의 작가 롤·로맹의 大河小說 「善意의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도 할수없는 사회의힘에 인간이 말려들어가는 상황을 그리면서도 인간의 善意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않는 작품이다. 작가는 이 소설의 서문에서 「善意있는 사람들의 數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것보다는 훨씬 많다」고 말하고 있다.

이 善意의 사람들이 있는한 우리는 惡앞에서 絶望할것 없다. 絶望이야말로 가장 큰 惡이다.

金聖佑 【編輯委員】

記者의 눈

어두운 社會面

29일 아침신문의 사회면은 온통 핏빛으로 물들었다. 서울에서, 지방에서, 봇물터지듯 발생한 毒殺·刺殺등 각종 살인사건의 「殺」字가 독자들의 가슴을 깊이찔러 피가 철철 흐르는 것같았다.

그많은 죽음의 行間에는 저마다의 갈등과 고뇌와 삶의 끈끈한 노력이 철철히 배었있고 그래서 목숨의 하염없음이 더욱 모두를 아프게 했다. 자신이 왜 죽는지 그 의미도 모르면서 아무 준비도 없는채로 그들은 숨져갔고, 가해자의 모진 증오와 어리석음이 살아남은 사람들을 전율케하고있다.

이날 하룻동안 신문사에는 독자들의 전화가숱하게 걸려왔다. 하나같이 「유혈이 낭자한신문」을 탓하면서 요즈음의세태를 개탄하는 볼멘 목소리였다. 그들은 아침식탁에서 또는 출근길에서 조간의 핏빛때문에 이미 상쾌한 아침을 빼앗겼다고 호소했다. 너무나 끔찍스러워 아예 신문을 덮어버렸다는 주부도 있었다. 독자들은 밝고 명랑하고 그리고 훈훈한 조간기사를 요구하는것을 잘안다. 그러나 이날 독자들의 전화를받은 기자들은 하나같이당혹감을 느꼈다. 사회면에 실리는 죽음이란게 원래 이같은 非命에의한 것임을 혹은 납득시키고 되풀이 설명하면서도 잔인한 칼부림과 눈먼 독기에대한 분노는 따로 고스란히 남았다.

엄밀하게 말해 그런사건이 없으면 그런기사도 없다. 그러나 아무런사건도 없기를 바라는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고백이지만 신문의 속성이 아니다. 그리고 때론 이같은 사건은 오히려 우리사회의 응어리를 다소나마 해소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등을 개선, 사회가발전하는 계기가된 경우도 있었다고 할수 있다.

다만 유사한 사건이 흉측하게도 집합적으로 발생한 요즈음의 사회병리적 현상이 또 집합적으로 지면에 반영됐다는 것이 독자들을 우울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어두운 지면은 앞으로 없을것이고 또 있어서도 안된다는게 우리의 믿음이다. 릴케의 詩대로 「아, 이 세상이 단 한번만이라도 아주 조용해질수 있다면…」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이고 「주여, 사람마다 그사람만의 죽음을주소서」가 이사회의 양식있는 모든이들의 간구일것이다. 인간과함께 자라서 인간과함께 성숙, 완성되는 의미있는 죽음을 모두 바라고있다.

4월을 마감하면서 되돌아보니 이달은 어지간히 길기도 길었다. 이4월에서 우리는 숱한 인간의 죽음을 보아왔지만 숱한 「인간의 목소리」도 아울러 함께들었다.

【任喆淳사회부기자】

구독신청은 533-2361

땅끝에서 오다

金成一 作 / 宋龍 畵 <46>

어둠속의 證人②

『잠깐.』

형사 한 사람이 생각난듯이 말했다.

『임 준호씨, 당신은 아직도 한가지 이야기하지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 말씀이십니까?』

『당신이 밤열한시에 문 영실의 집에 찾아간 이유말입니다』

『아, 네. 중요한 것을 빠뜨렸군요. 지금까지 회사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사태를 파악한 후에 당국에 신고하기 위하여 사건하나를 추적중에 있읍니다만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제가 그것을 설명하겠읍니다』

『말씀하십시오』

『실은 문 영실의 남편인 이 세원은 지금 실종중입니다』

『실종?』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중은 회사에서 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할 것입니다』

준호는 그들에게 이 세원이 실종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나리따 공항에서의 일들이며 고속도로상에서의 격투에 대해서도 설명하였고, 이 세원이 다른·드골 공항의 디파처 게이트 이후에서부터 실종되었다는것, 베이지색 체이서의 넘버 시나가와 55노15-64는 가짜넘버였었다는것 까지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래서, 이 사실을 문 영실에게 전하기위해 우선 집에도 들르기 전에 거기부터 들렀던 것입니다』

형사들은 열심히 그의 설명을 적고 있었다. 그들중의 하나가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건 인터폴 (국제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건이로군』

『그렇습니다. 이 세원은 디파처 게이트 이후에 실종되었으므로 세계 어느곳이든지 날아가 있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읍니다』

『혹시, 』

아파트의 문을 열어주었던 완강한 얼굴의 형사가 팔짱을 끼면서 말했다.

『혹시 북쪽 아이들의 장난은 아닐까?』

『북쪽…?』

그것은 바로 휴전선 북쪽 공산정권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준호는 그의 말에 동의하며 말했다.

『그럴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리비아는 그들과도 수교를 하고 있으며 그들도 리비아에서 몇가지 하청공사를 하고 있읍니다. 이따금씩 그들과 우리쪽 현장 사람들 간에 사소한 시비가 일어나는 일도있읍니다만, 더구나 이번 이세원이 취급하고 있던 프로젝트는 전 세계 모든 라이벌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던 큰프로젝트 입니다. 북쪽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음…』

사건이 국제화할수록 기가 꺾이는 경찰의 입장이었다. 비행기라곤 국제선은 커녕 국내선의 DC9도 타보지 못한 그들이었다. 결국 인터폴에 의지하거나 안전기획부에 일거리를 넘겨주는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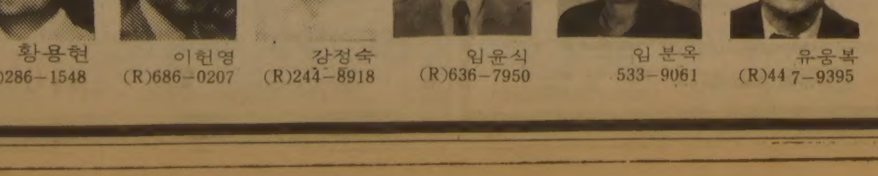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Tom Hwang Real Estate Limite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TELEPHONE 449-8644, 449-8446, 449-8645, 445-1516

금주의 새 리스팅

●버라이어티 스토어
(1)주매상: $12,000, $9,000, $6,500, $4,300, $4,000, $4,000, $3,800(임윤식)
(2)그로서리: 주매상 $14,000 asking: $200,000(이헌영)
주매상 $7,500 asking: $125,000(이헌영)
주매상 $14,000 asking: $250,000(황용현)
(3)기프트숍(Gift Shop): 연매상 $473,000 asking: $159,000
●Nut & Candy Shop
(1)Busy Shopping area에 있는, 권리금 $47,000(유웅복)
(2)Shopping Center에 있는, 권리금 $107,000(유웅복)
(3)Downtown Shopping center에 있는, 권리금 $35,000(황용현)
(4) Discount store (주6일 짧은 시간)
토론토까지 1시간거리, 연매상30만불, Asking $85,000(임윤식)
(5) Variety store, 주매상$9,600, Asking$149,000(임윤식)
Variety store, 주매상$8,000, Asking$119,000(임윤식)
●가게 꾸밀 건물
(1)주매상 $5,000 예상하는 빈가게 down $25,000(황용현)
●드라이크리닝(Dry Cleaning)
(1)주매상 $1,800 오샤와, 새로꾸밈 asking: $69,000, down: $40,000(황용현)
(2)주매상 $1,300 스카보로 아파트 밀집지역 asking: $48,000(황용현)
●Fast Food(Mall에 있는) asking: $88,000(유웅복)
●Fish & Chips(downtown shopping center에 있는)
주매상: $8,000, asking: $279,000(황용현)
▲Video Arcade(플라자내에 있는 좋은 조건), 28개 Game기계, Asking$85,000
(유웅복)
●투자용 건물
(1)프라자(4개의 스토어를 가진) Asking: $525,000, down $120,000(이헌영)
(2)Chicken & Mac's가 있는 Plaza
Asking: $625,000, down: $200,000(이헌영)
(3)Laundry 가게 붙(6개의 아파트를 가진) down : $150,000(유웅복)
(4)코너 건물, asking: $89,000(유웅복)
(5)15개 스토어가 들어있는 Plaza, asking: $1,350,000(유웅복)
(6)가게 달린 집(Yonge at Aurora) asking: $136,000(유웅복)
(7)Plaza(14개 가게가 달린) asking: $1,500,000(황용현)
(8)건물 달린 가게(코너건물) 주매상 $5,000
가게: $50,000, 건물: $120,000(황용현)
(9) 교외가게딸린 집, 주매상$6,000, Asking$154,000, Down$60,000(유웅복)
(10)플라자(10개스토어) 연순수입 $70,000, Asking$775,000(임윤식)
(11)플라자(8개스토어) 연순수입$77,000, Asking$870,000(임윤식)

-주택상담실 설치
그동안 저희 회사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신 교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저희는 많은 분들의 요구에 의해 주택상담실을 설치하였읍니다.
현재 소유하고 계신 주택을 파실 계획이시거나 새 주택을 마련코저 하시는 분들께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관한 상담에 기꺼이 응하고저 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좋은 조건의 모게지 알선
(2)가옥의 가치 평가
(3)가옥의 구조변경에 관한 문의
(4)가옥의 투자 상담
(5)가옥 구입시 필요한 제반 지식 제공


황용현 (R)286-1548 | 이헌영 (R)686-0207 | 강정숙 (R)244-8918 | 임윤식 (R)636-7950 | 임분옥 533-9061 | 유웅복 (R)447-9395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심술날씨"…氣溫 곤두박질
強風동반 오늘 中部 0도까지

주말인 30일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기온이 곤두박질, 중부내륙지방은 아침최저기온이 0도, 서울은 5도, 光州·大邱 7도, 釜山은 11도로서 예년에 비해 무려 4~8도정도 낮은 기온분포를 보일것같다.

중앙기상대는 29일 한동안 계속됐던 초여름 날씨가 이같이 바뀌게 된것은 우리나라가 한랭전선에 휩싸이게돼 강한 북서풍의 영향탓이라고 설명했는데 이에따라 낮최고기온도 12~15도로서 비교적 쌀쌀한편이되겠다고 예보했다.

기상대는 이같은 날씨는 휴일인 5월1일을 고비로 풀려 전국적으로 아침최저 8도, 낮최고는 19도로 정상기온으로 회복되겠다고 내다봤다.

強風…이틀새 死亡·失踪16명

李寬永건설부차관은 29일 국회건설위에서 『지난 26, 27일이틀간 우리나라 전역을 강타한 강풍으로 6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 부상 24명, 이재민 8백56명이 발생한것으로 집계됐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재산피해는 전파 2백12동, 반파 229동, 선박피해 1백9척, 공공시설, 농작물등 51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고밝혔다.

海上에 폭풍주의보 선박7천여척 묶여

【光州·浦項】 동해남부및 남해서부·서해남부해상에 내려진 폭풍주의보로 29일 상오 현재 浦項과 木浦항·麗水 莞島등 항포구에는여객선등 각종 선박7천여척이 발이 묶여있다.

이날 상오 현재 이들 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4~6m높이의 파고가 일고있으며 이로인해 木浦~濟州간의 카페리호와 鬱陵島의 정기여객선운항이 중단되어 승객과 관광객 6천여명이 인근여관에 묶으며 애태우고 있다.

4男妹 살해후 아버지도 自殺

【釜山】 29일 상오 8시께 부산 南區龍塘洞288 金성호씨(76)집 아랫방에 세든 裵우율씨(38·포장지행상)가 방안에서 장녀지영양(7)·장남 재성(5)·차남 민성군(3)·차녀윤희양(2)등 4남매를 목졸라 죽이고 자신은높이3m의 부엌천장에 나일론빨래줄로 목매 자살한것을집주인 金씨가발견,경찰에신고했다.

주인 金씨에 따르면 평소 아침일찍 행상에 나가던 裵씨가 이날은 인기척이 없어 방문을 열어보니어린 4자매가 나일론 빨래줄과 손수건으로 목졸린채 반듯이 누워 숨져있고 裵씨도 자살해 있었다는것.

裵씨부부는 4개월전 보증금 10만원에 1만5천원의 월세로 이집 3평짜리 방에 세들었는데 평소 부부싸움이 잦았고 28일 낮에도 심한 부부싸움 끝에 부인 朴씨가 집을나가 29일 아침까지도 귀가하지 않았다.

숙제안해와 罰서던 國校生 3층서떨어져 負傷

27일낮12시10분께 서울 道峰區三陽洞山111 三陽국민학교(교장 李雙漢) 본관3층 복도에서 康진희양(12·6학년15반)이 벌을 서다 8m아래로 떨어져 허리 왼쪽발목등을 다쳤다.

이날사고는 康양이 국어숙제를 해오지않아 담임이 역시 숙제를 안해온 학급친구 10명과함께 가슴에 『나는 숙제를 해오지않았읍니다』라고쓴 종이를 달고 복도에 서있게 했는데 이 종이가 바람에 떨어져 날자 康양이 이 종이를 잡으려고 1m높이의 유리창틀위로 허리를 굽히는순간 떨어져 일어났다.

康양은 29일에도 등교를 못했다.

同居여인 찾아갔던 휴가병 變屍로발견

【麗水】 29일상오4시10분께 전남麗水市菊洞 주공아파트1―12棟 100호실 앞 계단입구에서 육군모부대 소속韓成範일병(23·麗水市西校洞816)이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동거했던 崔모씨(27·여)를 찾아갔다가 턱밑과 옆구리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숨져있는것을 이 아파트2층 方吉心여인(37)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方여인에 따르면 29일새벽1시께 崔여인방에서 심하게 말다툼하는 소리와 유리창깨지는 소리가 들렸었는데 아침에 밖에나와보니韓씨가崔씨집앞에엎드린채 숨져있었다는것.

◇거꾸로 가는계절 한때 비를 동반한 강풍이 몰아쳐 기온이 뚝떨어진 29일 하오의 古宮。소풍나온 여학생들이 매트를 뒤집어 쓴채 오들오들 떨고있다. 【宗廟에서】

背後여부「40代남자」촛점

毒殺사건 金여인진술 의문많아 捜査집중

남편入院전부터 잦은密會
病院에도 들러…金여인 "사돈이다"

서울 乙支병원康鎬洙씨(37) 독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9일「40대남자」가 배후조종자 또는 공범일 가능성이 큰것으로보고 집중수사중이다. 경찰은 또 독살범 金연주씨(39)의부채가 당초 4천5백만원에서 1억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이「40대남자」를 수사하고 있는것은 범인 金씨가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기전부터 이남자와 자주 만났으며 乙支병원으로 옮긴뒤에도 병원부근다방에서 여러차례 밀회를 계속해왔고 전화를건사람도 이남자일것으로 보고 있기때문이다. 경찰은 범인 金씨가 남편의 제의로 계획된「촉탁살인」이라고 주장하고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고 康씨가 여호와의증인 신도로 교리상 죽음을 자초할 수 없으며 평소 아내에게 살해당할것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을확인, 배후조종자나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고 있다.

金여인負債 모두 1억여원
사건전날밤 行跡 횡설수설

…40대남자… 경찰은 康씨가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부터 金씨가 화장품가게 부근 Y다방과 M다방에서 40대남자를 자주만났고 남편이 大林성모병원에 입원한 뒤부터는 병원근처 S다방에서, 乙支병원으로옮긴뒤에는 병원부근 S다방에서 자주만났음을 밝혀냈다.

이남자는 金씨가 첫범행을한 지난13일을 전후해서 乙支병원옆 Y다방에 나타나『약간 얼굴이 엷은여자가 안왔느냐』고 종업원에게 물었는데 잠시후 金씨가 나타나 같이 머리를 맞대고 30~40분동안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것.

경찰은 또 지난달 22일 하오10시30분께 채권자 金모씨(35·여)가 康씨입원실복도에서 金씨와 이야기하던 40대남자와 인상착의가 같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채권자 金씨에 의하면 이날 초저녁부터 金씨를만나기위해 입원실에서 기다렸으나 金씨가 장남(11)에게 전화만하고 들어오지않아『내일오겠다』며 나갔다가 하오10시30분께 다시와보니 복도에서 金씨와 이남자가 이야기를 하고있었다는것이다.

채권자金씨를본 범인 金씨는 이남자를 사돈이라고 4~5번이나 강조했는데 이들 두사람은 서로 반말을해 이를 수상히 생각했었다는것.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남자는 키1백75㎝가량에 미남형으로, 건장한체격이었고 늘 초조한 모습이었다.

…金씨의부채… 범인 金씨의부채는 당초 8백여만원에서 金씨가 검거된뒤 4천5백여만원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경찰의 최종확인결과 개인및 冠岳단위농협, 화장품대리점등에 모두 1억여원의 부채가있는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밝힌 부채내역은 ▲大方洞 江南병원옆 P화장품대리점 1천만원 ▲L화장품회사에 2천5백만원 ▲冠岳단위농협융자금 6백만원 ▲九老區九老洞 金모씨6백만원 ▲冠岳區新林洞 李모씨(여) 1백60만원 ▲J화장품 공단대리점 1천만원 ▲경기始興언니 1천3백만원등이다.

또 경찰은 金씨소유의 양지연립주택도 지난해 7월 1천4백70만원에 구입하면서 현금은 70만원만지불했고 전세 6백만원, 융자 8백만원으로 산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金씨가 화장품대리점을 경영하기전인 81년6월 친정아버지의 집을담보, 6백만원을 농협에서 빌어쓴데대해 그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수사.

金씨는 이같은 거액의 사용처에 대해 입을다물고있는데 경찰은 金씨가 화장품가게나 살림외에 투자했거나 40대남자와의 유흥비에 쓴 것이 아닌가 보고 추궁중이다.

…康씨에관한의문점… 경찰은 숨진 康씨가 교통사고직후 입원했던 大林성모병원에서 문병객들에게『살려달라』고 울며 애원했고 화장품가게 지점장이던 자신의 친구인 차모씨(39)에게『공기를 넣은 주사기로 죽여달라』고 부탁했음을 밝혀냈는데 이때 康씨는 이미 아내가 자신을 죽이기로 결심한사실을 눈치채고 두려워했던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경찰은 숨진 康씨가 ▲독실한 여호와의증인 신도로 죽음을 승낙하는 일은 교리에 철저히 어긋나며▲또 교리상 금기로 돼있는 수혈을 감행, 수술을 받을만큼 자기생명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왔다는점등으로 미루어 부인 金씨의 배후에는 독살사건을 조종한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심증을 굳히고 있다.

특히 金씨는 남이보는앞에서는 康씨를 극진히 돌보는척했으나 단둘이 있을때면 매우 쌀쌀하게 대했고 康씨는 아내가 자기옆을 떠나면 무슨 흉계를 꾸미는것으로 판단, 매우 불안해했다는 주변 환자들의 진술도 얻어냈다.

또 康씨가 평소 金씨가 자주 만나는 모화장품대리점 남자사장과 사업관계이상으로 가까왔다는점도 눈치채고 있었던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경찰은 한편 숨진康씨가 청산가리가든 캡슐을 따서 손바닥에 털어서 입에넣고 우유를 마셨다는 金씨의 진술에대해 의문을 나타내고있다. 경찰에의하면 康씨의 진술대로라면 金씨의 입안이 탔어야하는데도 부검결과 입안은 말끔했었다.

…金씨행적의의문점… 경찰은 독살극전날인 25일의 金씨행적에 관해서도 재조사에나섰다.

金씨는 25일의 행적에 대해▲상오7시~9시=병원출발, 新大方洞의 화장품 대리점으로 갔고▲9시~11시반=가게에 있었고▲11시반~하오2시=친구인李모부인을 만났고▲하오2시반~5시=始興언니집으로가 함께 지냈으며▲하오 2시반~5시=始興을떠나 新大方洞모화장품대리점주인 S씨를만나 부근다방에서 얘기했고▲5시~6시반=다시 始興언니를 찾아갔으며▲6시반~8시=병원으로 되돌아가 아들(11)과 함께 부근중국음식점에서만나 독이든 우유를 건네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金씨는 이날하오 8시부터 병원으로 되돌아온 하오10시 사이에는『시내 여러곳을 돌아다녀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경찰은 하오8시이후의 행적에대해 집중추궁하고있다.

金씨는 또 독살미수극후인 지난20, 22일 두차례에 걸쳐 외박, 병원에 없었으며 그밖에도 매일상오7시에 병원을 나가 밤늦게돌아와 그사이의 행적이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未成年 落胎합법화
父母동의조건…내년부터 실시방침

미성년자도 낙태수술을 받을수 있는등 임신중절수술이 합법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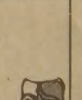
정부는 28일 ▲인구증가를 억제하고▲「원하지 않는 임신」으로부터 모체의 건강을 보호하며▲불법·음성적으로 낙태수술을 받음으로써 부작용을 빚는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모자보건법을 개정,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보사부가 마련한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의하면 ▲성윤리관이 확립돼 있지않고 임신에대한 판단이미숙한 미성년자의 임신은부모의 동의를얻어 낙태수술을 받을수 있도록하고▲영세민으로서 이미 2자녀를 가진 부부가 임신, 출산을 원하지 않을경우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얻으면 의사가 수술할수있도록 합법화했다.

이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모가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받을수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도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는이개정안을가을정기국회에제출, 내년부터는시행토록할방침이다.

맛 40년 三千浦 미찌횟집 陳又聶씨
有名人 즐겨찾던 名聲 이제는 시들



三千浦 미찌회집의회맛이 요즘 논란의대상이되고있다.『별것아닌데 소문만났다』거니『그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회맛을 모른다』거니 하는 내용이다. 40년이 넘은 전통의 회맛에 이처럼 부정적인 사람이 늘어난것은 다른 회집이 많아졌기 때문일까, 아니면 미찌의 주인이 작년에 타계한뒤로 부인陳又聶씨(60·사진·西錦洞35)혼자 꾸려가기 때문일까?

우리말로「또섭」이라는 이안주인의 장남 權道正씨(43)가 일제때「미찌마사」로 불리던데 그대로 식당이름이된 미찌는 당시 기관장들이 많이 오는곳이었다. 또섭씨가 빨래를하노라면 서울에서 승용차를 타고온 일본사람들이『빨래삯 따로 줄테니 회좀 해달라』고 불러들이곤해서 어느덧 회집이 됐다. 또섭씨의 남편은 딸셋뿐인 처가에 데릴사위처럼 들어와 부부가 정신없이 상을 나르다 청춘이 흘러갔다.

4남1녀 자식들을 교육시키느라 큰돈은 모으지 못했다. 지금은 성공한 자녀들이『이제 회집을 그만 쉬시란』고 자꾸 권하는판에 신문에 사진이 나면 큰일이라며『이야기나 듣고가라』고 말한다. 또섭씨는 회맛의 비결을 말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우선 싱싱한 생선을사고 초고추장에 엿을 섞지않는게 특징이란다. 적시에 상치를 깔지않고 회만 담아내는 것도 고집스러운 점이다. 이미 역사속의 인물이지만 朴正熙대통령도 인근泗川에서 교편을 잡을때 미찌의 회를 맛보고 갔는데, 10년전엔가 三千浦에 다시 들렀을때도 시내의 유지집에 또섭씨를 불러들여 회를 즐겼단다.

또섭씨는 각시를끼고 굴리고노는 요즘 회집들이 못마땅한 눈치다.

요즘은 또「밝은세상」이 되어서인지 높은 기관장이 와도 이곳에 모시는 일이없고, 그가 떠나면 여기사람들끼리 모여 수고했다고 꾸역꾸역 먹고가는게 보통이란다. 언제일지는 몰라도 또섭씨의「졸업」이 다가온것은 틀림없나보다.

미찌회맛의 논란도 그런 조짐이겠지만, 오래되고 전통있는 것들은 으레 시달리고 부대끼다가 하나씩 사라져가는 운명인 모양이다. 옛것과 전통은 오래갈수록 좋다. 【三千浦=任喆淳기자】

5行뉴스

◆내일부터 「열차入營制」

병무청은 29일 입대장정의 편의를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열차입영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열차입영제도」란 모든 입영장정에게 미리 타야할 열차, 승차역, 좌석번호등을 통보하여 해당장정이 개별적으로 승차를 끝내면 열차안에서 입영부대요원이 신병 인계인수를 하는 것.

◇警察승진 소요연한延長

경찰의 승진소요연한이 警監에서 警正으로 승진할때는 현행2년에서 3년으로, 警長에서 警査로 승진할때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示威학생 原審깨고 抗訴審서 重刑

【水原】 水原지법 항소부(부장판사 이영준)는 29일 교내시위 주동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10월을선고받은 成均館大 최성중(20·낙농과2년) 안성대(22·전자공학과3년) 유인선군(23·농기계학과3년)등 3명에게 원심을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씩의 중형을 선고했다.

金여인에 청산염판 化工商會주인 令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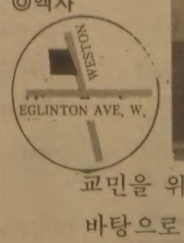
서울中部경찰서는 29일 乙支병원독살범 金연주씨에게 청산가리를판 白五鉉씨(48·한진화공약품상사 대표·서울冠岳區新林8洞 1656 미성아파트 2동 109호)를 독극물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운 전 학 교
PRINCIPAL
DRIVING SCHOOL
* LEARN DEFENSIVE DRIVING *
●이론과 실기 그리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빠르게 습득하도록 지도함.
CPDEA MEMBER
☎ 221-7783, 789-1679

Grant Brown
■각종 왜건(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한국 가구의 전당
KIM'S ART GALLERY
◎옥돌가구
◎한국고전가구
◎동양화
◎액자
◎나전칠기 제작・수리
◎맞춤전문
OPENING HOURS
MON–FRI: 10:00–9:00
SAT: 10:00–6:00



교민을 위한 본 한국인의 가구공장에서는 언제나 최대의 신용과 친절을 바탕으로 항상 여러분께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겠읍니 김석환올림
1198 WESTON RD. TORONTO TEL : 247–3226
1286 WESTON RD. TORONTO TEL : 243–0233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드리는
한인식품
한인에 필요한 식품 생활필수품 일체
연중 무휴 아침10시부터 밤10시까지
시내 전역과 근교 무료배달
15 West Deane Pk. Dr. (east mall Plaza)
Etobicoke Tel. 622-2643 대표 손덕수

BLOOR–SHAW
SHELL SERVICE
□일반 자동차수리 JOB □토잉
모든 자동차 일반 CHECK –UP을 컴퓨터—씨스템(SCOPE)로 즉시 알려드립니다.
한인교포에게는 10% 할인
아리랑하우스옆 주유소
726 BLOOR ST. W
(크리스티×불루어 코너)
☎531–7818, 531–2218 마리오

光州一 4강1着

盧璟浩·文熙秀 계투작전

「恐怖타선」 浦鐵工 "空砲打"만 4-2

嶺南 6개팀 모두 탈락

대통령盃고교야구 準準決

光州一高가 嶺南의 마지막 보루 浦鐵工高를 4-2로 격파하고 가장 먼저 4強에 뛰어올랐다.

비로 하루를 쉬고 29일 서울운동장에서 계속된 제17회 대통령盃전국 고교야구대회 준준결승 첫경기서 光州一高는 盧璟浩·文熙秀의 계투로 공포의 浦鐵工 타선을 5안타로 잠재우고 5번 朴俊泰의 2타점 3루타 8번 文熙秀의 솔로 홈런등을 묶어 4-2로승리했다. 이로써 嶺南 6개팀은 모두탈락하고 湖南3개팀중 光州一高가 준결승, 光州南高가 준준결승에 진출, 호조를 보이고 있다.

강풍속에서 이날경기는 초반浦鐵工 우세로 진행됐다.

浦鐵工은 1회말 선두崔海明이 안타를 친데이어 3회말에는 선두8번 李明雨가 光州一高선발 盧璟浩로부터 포볼을 고르고 희생번트로 2進한후 崔海明의 중월3루타로 홈인, 1점을 선취했다.

그러나 浦鐵工은 이후 릴리프로 등판한 光州一에이스 文熙秀의 강속구에 제대로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3안타 1득점만을추가하는데 그쳤다.

浦鐵工투수 李明雨의 투구에 눌려 침묵을 지키던 光州一高는 5회초에 첫안타를 날리고 6회초 1死후 1번金星圭가 1루수에러로 출루, 2번 千相柱가 좌중간을 빠지는 2루타로 뒤를받쳐 동점을기록했다.

다시 4번 鄭永鎬의 포볼로 주자1·2루의 찬스가 계속되자 이날의 히어로5번朴俊泰가 우익수 옆으로 빠지는 결승3루타를 날려 2점을 추가, 3-1로 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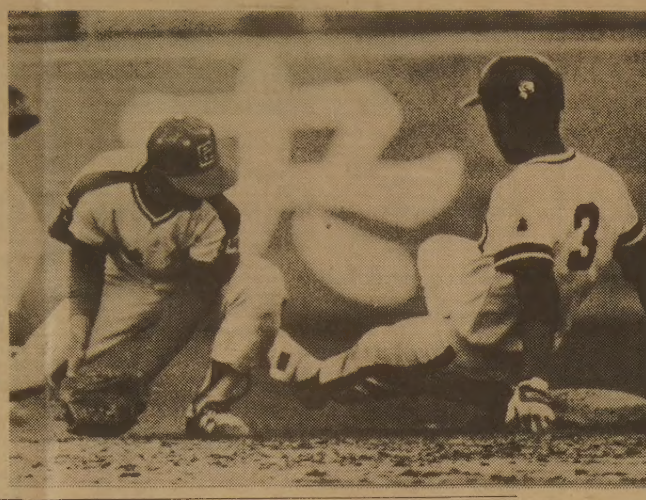
7회에는 8번 文熙秀가 외야쪽으로 부는 바람을타고 뻗어나가는 좌월1백30m 홈런을날려 승리를 굳혔다.

浦鐵工은 8회말에 1번崔海明의 2루타 2번 李錫瑚의 중전안타로 1점을 만회하고 9회마지막 공격에서는 光州 내야수의에러와 포볼등에 편승, 2死1·2루의 추격찬스를 맞았으나 후속타가 터지지않았다.

◇준준결승전적

광주일고	000	003	100	4
포철공고	001	000	010	2

▲홈런=文熙秀(7회·광주일고)



◇하마터면 죽을뻔 ◇光州一高에 1-4로 뒤진 가운데 浦鐵工의 7회말 공격. 1死후 중전안타로 나간鄭成龍이 2盜, 슬라이딩하다 미끌어져 하마터면 光州一유격수 金宣鎬에게 태그아웃될뻔했다.

馬山高 첫패권

종별농구 三千浦綜高 2連覇

【大邱=閔炳宅기자】馬山高와 三千浦綜高가 제38회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 남녀고등부패권을 차지했다.

馬山高는 29일 大邱실내체육관서 열린 대회6일째 남고부결승전서 金兌勳(20점)·姜斗洙·林宗奎의 활약으로 光州高에 65-61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이대회 첫패권을 차지했다.

三千浦女綜高는 朴永淑의 득점과 成貞兒의 리바운드로 水原女高를 66-49로 물리치고 지난해에이어 2連覇했다.

釜山東州女中은 동향의 惠花女中을 41-23으로 제압하고 6년만에 여중부우승을 차지했다. 여자일반부 준결승서는 80년이래 3년째 패권을 장악하고있는 太平洋化學이 洪英順의 게임리드와 朴贊淑의 활약으로 코오롱에 65-49로 승리, 결승전에 올랐다.

남고부결승서 馬山高는 光州高를 맞아 전반서 1m90이 넘는 趙顯吉과 尹滑善을 골밑에 박아두는 3·2존으로 光州高의 중거리슛을 차단, 역전의 실마리를 풀었다.

馬山은 후반9분께 38-45로 뒤진상황에서 가드 宗奎등이 연속5골을 성공시켜 46-45로 첫번째 역전드를잡고 엎치락 뒤치락 시소끝에 馬山의 金宗奎가 과감한 골밑 드라이브슛을 계속터뜨려 65-61로 승리, 창단35년만에 대회첫패권을 따냈다.

◇제6일 전적

▲여중부결승 부산동주 41(23 18 / 8 15)23 부산혜화

▲여고부결승 삼천포여종 66(34 32 / 20 29)49 수원여고

▲남고부결승 마산고 65(39 26 / 28 33)61 광주고

▲여일반준결승 태평양화학 65(39 26 / 29 20)49 코오롱

한국女子 오늘對日戰

세계탁구 英國도 격파 3연승

【東京=李廷元특파원】제37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출전중인 한국여자팀은 대회초반 유럽팀을 연파, 순조로운 스타트를 끊었다.

29일 현재 여자단체전 패권의 향방은 예상대로 中共·北韓(이상A조) 日本(이상B조)의 4강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우승을 목표로 하고있는 한국여자팀은 오늘(30일) 하오4시 日本과 대결한다.

한국의 최종목표는 최강 中共이지만 對日戰결과에 따라 B조1위를 차지할 수있느냐의 여부가 결정되므로 예선전 최대고비라할 만한 일전이다. 만약 한국이 日本에 진다면 B조2위가돼 A조1위로 예상되는 최강中共과 준결승전을 가져야하는 부담을 안게된다.

81년도 노비사드 세계선수권때 여자단체전 9위로 사상최악의 부진을 보였던 日本은 총력을 기울여 이번대회에 대비하고 있다.

日本은 선수들을 대폭교체, 신예들을 대거 기용했다. 日本선수단중 기존 대표선수는 간다(神田)한명뿐이며 와다(和田) 가와히가시(山東) 시마우찌(島內)등은 모두 제외되었다. 호시노(星野) 신뽀(新保) 다무라(田村)등을 단체전주전으로 기용한것은 사활을건 모험이다.

日本국내랭킹1위인 간다는 포핸드 드라이브를주특기로 하고있으며 고교2년생인 호시노는 왼손드라이브가 일품. 올해17세로 日本탁구사상 최연소대표선수다.

신뽀와 다무라는 전형적 수비선수다. 다무라는 라켓한쪽면은 페인트라버를 사용, 구질이 까다롭다.

한국은 對日戰에 梁英子 尹璟美를, 日本은 간다와 호시노를 각각 주전으로기용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간다는 지난해 뉴델리아시안게임서 梁英子를 2-0으로 꺾었으며 금년초 東京초청대회서도 세계챔피언 童玲을 두차례나 제압했다.

1m57, 48kg의 호시노는 왼손드라이브를 자랑하고있다.

그러나 前한국대표팀감독 千榮石씨는『日本은 한국과의 단식경기에 간다와 다무라를 내보낼것으로 예상했다. 호시노는 유망주지만 국제경기경험부족으로 까다로운 구질의 다무라를 내세울 공산이 많다는것. 간다가 梁英子를 꺾은 실적이 있으므로 복식성적여하에 따라 3-1혹은 3-2까지 日本이 추격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호시노가 기용될경우 梁英子 尹璟美의 전력이 우세하므로 한국의 낙승이 예상된다는것이 千씨의 분석이다.

【東京=李廷元특파원】제37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여자팀은 29일 英國을 3-0으로 완파, B조예선서 3연승을 올렸다.

한국남자팀은 28일밤 단체전 예선 A조경기서 예상을 뒤엎고 강적 체코에 5-0으로 완승, 1승1패가 목표인 5~8위 결정전 진출의 첫 징검다리를 밟았다.

한국은 이날 전진속공수 金琪澤이 1차단식과 4차단식서 체코의 강자들을 연파, 승리의 기틀을 마련했다.

현재 지난대회 챔피언인 中共 남자팀은 2연승, 여자팀은 3연승을 거두고 1세트도 뺏기지 않고있다.

남자A조서는 中共·스웨덴, B조서는 일본·헝가리·영국이 나란히 2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여자A조서는 中共·북한이 3승으로 선두그룹을 이루고 있다.

한국 亞洲卓聯 가입 전망

집행위、내년總會에 위임

한국이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아시아탁구연합(ATTU) 가입이 84년 실현될 것같다.

대한탁구협회 崔元碩회장은 29일 기자회견을통해 이날 동경 게이요·플라자호텔서 열린 ATTU의 7개국 집행위원회(中共·日本·싱가포르·말레이지아·파키스탄·팔레스타인·북한)는 한국가입문제를 84년10월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차기총회에 위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72년 中共과 日本이 ATTU를 창설한후 한국은 그동안 가입키위해 많은노력을 해왔으나 북한이『회원가입은 집행위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는 규정을 이용,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가입의 길이 막혔었다.

그러나 이번 ATTU집행위가 이같이 차기총회에 위임을 결정했기 때문에 한국은 차기총회(47개회원국)에서 투표로 가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崔회장은 이같은 결정이 나오게된것은 한국이 86년아시안게임·88년 올림픽을 유치했기 때문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경기력향상은 물론 적극적인 스포츠외교활동을 계속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ATTU총회서 한국가입문제가 이번 동경 ATTU집행위원회에서 거론키로 연기됐으며 당시 ATTU는 내년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대회부터 한국의 참가를 인정키로 결정한바 있다.

한국은 내년총회에서 41개회원국중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으면 ATTU의 가입이 실현될것으로 보인다.

海外스포츠短信

美맨시니 쇄골부러져 연습중, 타이틀戰취소

【요하네스버그=聯】WBA(세계권투협회) 라이트급 챔피언 레이·맨시니(미국)는 지난27일밤 연습도중 쇄골이부러져 오는 5월28일로 예정됐던 케이·보그너(美國)와의 타이틀전이 취소됐다고 프러모터 봅·아럼씨가 28일 밝혔다.

IOC 藥物검사檢討 LA委서 檢査거부로

【로잔(스위스)AP=聯】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로스앤젤레스올림픽조직위원회가 84년올림픽대회에서 선수들에 대한 카페인과 테스토스터론의 약물복용검사를 거부한데따라 약물요건을 재검토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IOC의 한 대변인은 IOC의료위원회가 로스앤젤레스올림픽조직위의 그같은 결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IOC가 약물복용검사방침을 변경하거나 로스앤젤레스조직위와 타협하게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하지 않았다.

로스앤젤레스조직위는 카페인과 테스토스터론에 대한 조사가 유효하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받기전에는 84년 올림픽에서 이 부분에대한 조사를 하지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渡邊 6월 4차방어전 멕시코의 라미레스와

【大阪AP=聯】WBA(세계 권투협회) 주니어밴텀급 챔피언인 日本의 와다나베·지로(渡邊次郞)는 오는 6월23일 日本 北部센다이(仙臺)에서 도전자인 멕시코의 로베르토·라미레스와 4차 타이틀방어전을 가질 것이라고 28일 발표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센다이의 한 日本체육관에서 훈련중인 라미레스는 프로전적 27승(19KO승) 4패1무승부를기록하고 WBA랭킹10위에 올라있다.

18승(13KO승) 1패의 전적을 가진 챔피언 와다나베는 기자들에게『라미레스는 빈틈없는 공격을 구사하는 강인한 상대지만 그를 꼭 KO시키겠다』고 장담했다.

와다나베는 지난해 고향인 大阪에서 파나마의 라파엘·페드로사선수를 누르고 타이틀을차지, 지난2월24일 도전자인 페루의 루이스·이바네스선수를 8회에 KO시켜 3차 방어에 성공했었다.

이민의 문화적 자아를 밝혀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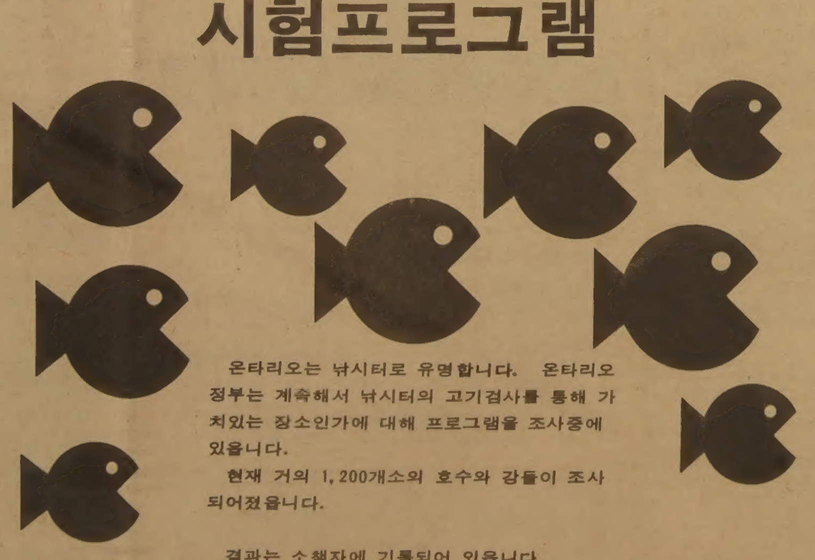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WALKIN COOLER, FREEZER, AIRCON, NEW & USED SALE　판매 수리 시설

GENERAL REFG. LTD. DEALER

PALMERS REFG. AIRCON CO.
750 OAKDALE RD. UNIT #10
Bus. 494-0512　Res. 493-9945　김봉균

온타리오 고기 시험프로그램



온타리오는 낚시터로 유명합니다. 온타리오 정부는 계속해서 낚시터의 고기검사를 통해 가치있는 장소인가에 대해 프로그램을 조사중에 있읍니다.

현재 거의 1,200개소의 호수와 강들이 조사되어졌읍니다.

결과는 소책자에 기록되어 있읍니다.

GUIDE TO EATING ONTARIO SPORT FISH
Northern Ontario, Lake Superior, Lake Huron

GUIDE TO EATING ONTARIO SPORT FISH
Southern Ontario and the Great Lakes

유효한 1983년 프로그램

당신의 가까운 사무실에서 무료책자를 얻을수 있읍니다.

ONTARIO MINISTRY OF THE ENVIRONMENT
ONTARIO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ONTARIO MINISTRY OF NORTHERN AFFAIRS

책자는 6월에 휴가지역중 맥주파는 곳이나 LCBO가게에서 얻을수 있음.

Ministry of the Environment
Hon. Keith C. Norton, Q.C., Minister

Ontario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Hon. Alan W. Pope, Minister

축하합니다!

KWI STUDIO
Photography and Graphic Design
77 VIRGINIA AVE.
TORONTO, ONT.
(416)425-8043
〈오후6시이후〉· 최귀암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Rockwood Mall 안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_ _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컴퓨터 식자 서비스
컴퓨터 식자기를 이용하여
책을 만드실 분 문의 바랍니다. ☎ :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풀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 웨이트레스 구함.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 (금천루)
사천요리 전문, 단체손님 환영(280석)
전화 491-4058 신영식, 하주용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오 !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절 취급. ※웨이트레스 급구함.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Mr. Kim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252-1638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코 라 메 관 광
(나이아가라폭포. 1000 Islands 일일관광)
649A BLOOR ST.W. (제일여행사내)
전화 : (416)535-0853, R)265-4842 함영호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홍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를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안 경 점

블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 권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 AUTO SERVICE
▲라지에타 ▲히타 ▲개스탱크 ▲워터펌푸수리
◉Radiator Service (B)245-1978, (R)248-6032 김용한
◉Auto Service (B)245-2024, (R)759-9753 유선만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샵.(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장 의 사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안내광고 : 533-2361

카펫 · 카텐

카텐이라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카텐카페트상사로
◉16년경험 ◉분납가능 ◉무료견적 ◉품질다양
전화 : (B)252-4857 (R)252-6602 Mr. 유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총재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철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토중국한의사 진영익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쥬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UOFF
다이아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 전화 : 922-8350

구 인

리셉셔니스트 구함.
영문편지와 영어회화에 능통한자.
전화 : 961-7100. 박종수태권도장. Mr. 박 or 모니카.

도넛숍에서 밤일 풀타임, 파타임
일하실 여자분 구함.
398 Church St.(at Carlton) 전화 : 977-0303

Store Helper 구함
Part Time 유경험자
전화 : 534-0228(Davenport & Dufferin)

"거구장"
경험있는 요리사와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전화 : 742-1618.

웨이트레스 급구.
유경험자 우대함.
전화 : 757-6334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매일 또는 매주 금요일 현금지불
전화 : 654-6628 Mr. Tommy

〈무역담당 직원구함〉
자격 : (1)대학졸업자 (2)무역경험자 (3)영어능통자
(4)남자 또는 여자분
Start 년봉 : $25,000
전화 : 677-4749(제니) Jenny

Fast Food 주방헬퍼와 파타임 카운터학생 구함
(경험자 원함)
전화 : 오후6시이후 (R)438-0403, (B)483-0921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매주말에 지불함.
전화 : 534-5903 Mr. Peter

주말 Store 헬퍼 구함. (Etobicoke지역)
전화 : 231-7944 오전중 연락요망

입주하셔서 아이들 돌봐주실분 구함.
오후5시 이후 연락요망
전화 : 276-6911 Mrs. 윤

입주하셔서 남자아이 둘(5살, 9살) 돌봐주실 아주머니 구합니다. 미시사가 지역.
전화 : 276-6911 (오후5시이후 연락요망)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
영어에 능통한 자.
전화 : 221-9051.

입주하셔서 17개월간 2살된 남자아이 돌봐
주실 분과 약간의 가정일 돌봐 주실분
전화 : 270-1981

가발 염색및 가발 만드실분 구함.
경험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하나 꼭 필요치는 않음. [illegible]
풀타임 또는 파타임으로 다운타운 지역임.
Training을 받기 위해서는 꼭 영어를
말할 수 있어야하고 이해하여야만 함.
문의 : 977-1122 Randy

입주하셔서 가족같이 지내시며
애들(3세, 5세 여아) 돌봐주실 분
월 $500 전화 : 741-9575

경험이 많은 캐쉬어와 헬퍼 구함.
68 Yonge St. LULU 카페

헬퍼구함. 청소하실 분.
Weston 지역.
전화 : 743-2373(오후5~8시사이 연락요망)

과일 채소가게에서 일하실 결혼하신 분.
직접면담요망.
주소 : 383 Roncesvalles Ave. Elliot's Food Market.

주말헬퍼구함.
경험자우대. 몬트리얼지역.
"회의 집" 전화 : 1-(514)-861-6128.

영어가르쳐 주실분 구함.
전화 : 535-6517. Mr. 권.

매 매

Dry Cleaners(Depot)매매.
주매상$850. Rent$350 Asking$23,000.
전화 : 531-5664.

도우넛 숍 장비매매.
Half Price Sale.
전화 : 884-5573. Mr. 강.

—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전 30권) —
1. 세계최고의 권위있는 백과사전(215년의 역사와 전통)
2. 국민학생부터 중·고등·대학·전문기술자·대학교수까지 사용.

•국민학생용 15권 •ATLAS 지도책 1권
•유치원용 16권 •WEBSTER사전 3권
•유아용 12권 •SCIENCE백과사전 21권
•세계명작전집 54권 •의학백과사전 4권

★"Reading과 Writing에 관한 중요성을 자녀들이 인식하도록 가능하면 일찍부터 지도하는 것이 자녀들의 성공을 위한 열쇠입니다."
★연락처 : (416)469-1350 또는 463-7423 LEE S.W.

▲야채및 과일가게
주매상 $6,000이상. 리스 5+5+5년.
계속 발전되고 있는 동네안의 깨끗한 Plaza내에 위치.
가정형편상 급매코저함. 유경험자나 대가족을 가지신 분은 꼭 한번 보십시요. 아스킹 $59,900
▲Fast Food
Bloor & Yonge의 바른 Shopping Center안에 있음. 주매상 $4,500. 리스 3+5년. 짧은 시간. 같은 주인이 7년간 운영. 본국으로 돌아감. 아스킹 $129,000
채준성(David Chae)(B)497-8900 New line Center
Sincere Realty Inc.

빵가게(Bakery) 매매. 프라자내 있음.
아스킹 $189,000(도구포함). 리스 5년.
Dufferin & Steeles. 전화 : 745-7551(Susan)

Tuck-Shop Variety Store 급매
꼭 관심있는 분만 내방을 바람.
면담시간 : 9am~11am
영업시간 : 8:30~9까지 하고 있음.
장소 : Dundas + Parliament 근방
39 Belshaw Place Tor.

쎄미·디타취 벽돌집매매(Montrose & Bloor St.W.)
코리아타운근처. 3Bed Room. 이층집. 완전수리. Parking Lot있음
Asking $99,000. B)596-8681. R)465-1753 Mrs. Chao

Convenience Store 매매. 영 & HWY 7.
새프라자내. 아스킹 $39,000 + 스탁.
리스 5년 + 5년. 전화 : 492-9031(Mr. Tam)

가게 달린 주택 매매.
좋은 위치, 좋은 전망.
전화 : 653-1958 Mr. Viss 영어로 문의바람.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전화 : 487-0108

오타와 중심가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타사업 관계로 급매. 주매상 : $7,000
렌트 : $650 전화 : 1-613-238-3837

가게 사실분 또는 매니저 구함.
해밀톤 지역서 성업중.
전화 : 1-560-6400 Mr. 정

GIFT STORE(선물가게) 매매. 큰 Mall안에 있음. 리스 1992년까지 + 10년옵션가능.
전화 : 633-7479.

집과 가게건물 두채를 매매, 혹은 리스코저 함.
매매 19만불. 7만 Down.
전화 : 291-6625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 $5,000.
렌트 : $700. 리스: 6년+10년 옵션
전화 : 1-388-4825(해밀톤)

Daily Case와 Cooler & 야채다이 팝니다.
전화 : 844-2922

Convenience Store 매매.
직접 내방 요망.
1801 Lawrence Ave. E. Scarboro.

PICK-UP 세탁소 매매. Asking: $6,000
Apt. Rent 포함 $400. 리스 8년
전화 : 534-5904 Mr. Peter

도나스 숍 매매. 주 $5,500
Bathurst & 580 Queen St. W.
전화 : 368-2100

매우 바쁜 신발수선가게 매매.
Asking $9만. 전화 : 826-4355.

블로아에 위치한 스토아 매매, 비데오게임 라이센스.
Post Office 로타리오 머신 연수입 7만2천이상
Asking Price : 9만5천+Stock 전화 : 588-1494

이전관계로 좋은 조건으로 급매.
3 Bed Room. 콘도미니움 타운하우스.
전화 : 493-0615 Mrs. 안(6시반이후)

도너스가게 매매.
주매상 $3,600. 아스킹 $145,000(St. Clair & Midland)
전화 : 421-6964. John or Peter.

〈급매〉 서쪽 끝에 잘 관리된 현대감각의 천과 커텐가게, 필요에 따라 배울때까지 보조함.
Mr. or Mrs. Shine 전화 : 225-6999

버라이어티스토아 건물 포함 매매
주매상 : $4,000 Hamilton
전화 : 1-529-0018

집과 가게딸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4 Bed Room. Eglington & Jane. Asking 13만9천불.
전화 : 767-5080 Mr.리

햄버거 레스트랑 매매.
성업중, 리스 좋음. Downtown(시내중심가)
전화 : 461-2404

새로운 각종 비데오게임 매매.
이익은 50%씩 나눔. 좋은 Terms.
전화 : 247-3713

Town Houese 매매(좋은 가격) · 매매.
Jane & Sheppard지역
전화 : 743-3377 Mr. Eastman

장비매매. 새커피머신(그라인더) $600. 새초코렛머신 $400.
새 Meat Slider $1,300. 새써브마린테이블 $2,000.
커피테이블및 의자등등. 전화 : 465-6885(Mr.김)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아파트써부릿렌트. 온타리오싸이언스부근. 현재 월$605.
3 Bed Room(8월이후$650). 5월15일부터 입주가능.
전화 :424-1993. 낮 536-2155.

교통이 편한 Luxury 아파트 써브렛.
Large 1 Bed Room(언제든지 입주가능함)
191 Sherbourne St. 전화 : 368-8138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DANCE STUDIO
로맨티 탱고, 룸바, 차차, 스윙등…
2 for 1 봄철특별할인. 전화 : 781-0691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1 Vaughan Rd. (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 ◉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순꽃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도서판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248-2437(R)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소피아미용실
1133 Dundas St.E. Missi. Ont.
B)270-4684. R)277-8985. Mrs. 고.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하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춘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88-2444(B) 491-5962(R)

사무용구및 계산기

SB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선물센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W.
535-9541 MR. 김

한인민족상기금모금

연예인초청쇼

"아직도 그대는 내사랑"
이 은 하

"진정인가요"
김 연 자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 주 일

"잊혀진 季節"
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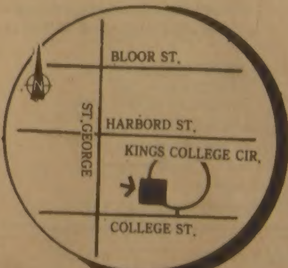
그룹사운드
"호랑나비"

● 일시 · 1983년5월13일(금) 오후7시30분

● 장소 · 토론토대학 콘보케이션홀
(칼리지×세이트 · 죠지) Kings College Circle

■ 입장권예매처(A석 $15/ B석 $12./ C석 $10)
한국각식품점 / 한국관 / 동궁 / 아리랑하우스/ 남강식당

※노년회원 특별할인($2할인) □구입처 · 한국노년회, 한국일보사



주최 · 토론토한국일보사, 한인민족상위원회